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 년 8 월

석사학위 논문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urrency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이 금 희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urrency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

2008 년 8 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이 금 희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노 경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4 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이 금 희

# 이금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명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제홍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노경 (인)

2008 년 5 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 목 차

ABSTRACT .....	vi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b>제2장 동북아 통화통합의 배경 및 동북아의 경제적 지위 .....</b>	<b>4</b>
제1절 통화통합의 배경 .....	4
1. 통화통합의 이론적 배경 .....	4
2. 통화통합의 논의의 배경 .....	5
제2절 통화통합의 필요성 .....	10
1. 환율안정에 따른 역내교역 및 투자증진 .....	10
2. 역내국가간 환율 안정으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 .....	11
3. 동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응블록의 필요성 .....	12
제3절 통화통합의 공동이익 .....	13
1. 거래비용의 절약 .....	13
2. 환율의 변화와 위험의 제거 .....	14
3. 물가 안정성의 강화 .....	14
제4절 동북아가 경제 전 지구 중에서의 지위 .....	16
<b>제3장 달러와 유로화가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 미친 영향 .....</b>	<b>18</b>
제1절 미 달러화의 약화 .....	18
제2절 유로화 출범 후의 모습과 그 성과 .....	21
1. 유로화 출범 후의 모습 .....	21

2.유로화 출범 후의 성과 .....	22
제3절 유로화가 아시아 지역적 화폐금융에 대한 범적 영향 .....	25
제4절 동북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의 방향 .....	29
1.동북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의 태동 .....	29
2.논의의 방향 .....	30
<b>제4장 동북아 3국의 무역투자관계 및 중·일의 경쟁력 비교 .....</b>	<b>32</b>
제1절 동북아지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	32
1.세계직접투자 추이 .....	32
2.한·중·일간의 해외 직접투자 .....	34
제2절 한·중·일 역내교역 추이 .....	37
1.한·중·일 3국의 대외교역 추이 .....	37
2.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추이 .....	38
3.국별 역내교역 추이 .....	40
제3절 한·중, 한·일, 중·일 양자 간 교역 .....	43
1.한·중 교역 .....	43
2.한·일 교역 .....	46
3.중·일 교역 .....	48
4.한·중·일 3국간 교역집중도 .....	51
제4절 통화통합 과정에서 중·일의 경쟁력 비교 .....	56
1.중·일 양국의 경제실력 비교 .....	57
2.중·일 양국과 동아시아 성원국간의 무역연계 비교 .....	58
3.중·일 양국 국내금융체계의 발달정도 비교 .....	60
4.위안화와 엔화의 화폐가치의 명성 비교 .....	60
<b>제5장 동북아 3국이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 및 중국 위안화의 부상 .....</b>	<b>62</b>
제1절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 .....	62
1.동북아 개발은행의 구상 .....	63
2.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한 이유 .....	63
3.주요국에 관련된 정치적 의의 .....	66

4.출자국 부담 .....	67
제2절 중국의 고도성장 .....	69
제3절 중국 위안화의 부상 .....	73
<b>제6장 결론</b> .....	<b>79</b>
<b>참고문헌</b> .....	<b>81</b>



## 표 목 차

<표 4-1> .....	33
<표 4-2> .....	35
<표 4-3> .....	36
<표 4-4> .....	38
<표 4-5> .....	44
<표 4-6> .....	47
<표 4-7> .....	49
<표 4-8> .....	58

## 그림 목 차

<그림 4-1> .....	39
<그림 4-2> .....	39
<그림 4-3> .....	41
<그림 4-4> .....	42
<그림 4-5> .....	42
<그림 4-6> .....	45
<그림 4-7> .....	48
<그림 4-8> .....	50
<그림 4-9> .....	52
<그림 4-10> .....	52
<그림 4-11> .....	53
<그림 4-12> .....	54
<그림 4-13> .....	55
<그림 4-14> .....	55

# *ABSTRACT*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urrency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

Li Jin Ji

Advisor: Prof. Park Ro Kyung,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3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for the possibility on the currency integ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Chinese Yuan whose role is rapidly increased in Asia region.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two important trends in the world's development. Europe is in front of the regional integration in the development. After the Euro achieving a single currenc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nified European market, North America has endeavored to build a free trade zone also to expand throughout the Americas. As the one of the world economic major centers, regional cooperat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have started lately. In East Asia, the most prominent economic power is form the Northeast Asia.

Therefore, we say that the East Asian regional economic zone in Northeast Asia is more appropriate. At present, the Northeast Asia has shown the

fastest possibility to develop a new type of trade transactions in which the world will be interested greatly.

Like launch the Euro, the dollar's position, first of all, is to mak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monetary unification. Unified approach is for the currency market to stabilize prices and maintain economic stability and balanced development.

Currency unification will enable factors of production to distribute among countries within the regions by re-configuration, which is based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mbalance caused by factors of production. Northeast Asia has good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apital, technology, natural resources, labor, and other factors of production.

Northeast Asia countries respectively, have different advantages. Therefore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countries can develop the economy each other, and can provide the opportunity in the mutual market. This is for not only to countries to expand production, increase employment, but also greatly to enhance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its economic strength for making a Northeast Asian region fully vigorous and vitality as the hot spot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To achieve this goal, the most in need, Northeast Asia is to enhance the economic strength,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the three countries (China, South Korea, Japan) should co-work together for using the economic advantages. However, for the accomplishment of monetary 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which country will drive for the unification of currencies.

This is a very sensitive subject because the seigniorage (currency issuing gain for the key currency country) will be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strength, trade and investment as well a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currency integration. This would be followed from the academic basis for establishing its dominance in Northeast Asia and monetary unification for the strategic needs.

When we judge the potential possibility based on China's current rapid

developing conditions, China has shown the leading economic power in Northeast Asia obvi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change rate of the Yuan compared to the other two countries' exchange rates, fluctuations are significantly smaller.

This is because China is using a real dollar pegged for the policy stability of the yuan exchange rat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On the other hand China is maintaining long-term economic growth both home and abroad markets that would be expected the good prospects on China's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addition,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maintaining the yuan exchange rate has made the China' exchange rate stable in the world. And also China had won a high reputation and praise among East Asian nations.

These examples gradually make the yuan is not only important in Northeast Asia, but also further it would be prominent like Euro as a world key currency with providing possibility for the theoretical and real background.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질서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지역경제 통합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혼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경제권을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 금융의 모습에서 보면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도가 최초의 추세가 되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신용을 전제로 한 양자 혹은 다자간의 평가 고정제도가 대세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대한 관점이 생김에 따라 "한 국가에 한 화폐"라는 기존의 가치는 퇴색되고 있다. 특히 12<sup>1)</sup>개의 국가가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 통화통합의 형성은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화폐조합에 의해 채택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지역통화체제나 통화통합을 동아시아에서도 만들자는 논의는 학술적 토론의 장이나 정책 토론의 장에서 자주 제안되고 논의해 왔다.

가장 치명적 이었던 것이 바로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였으며 다시 같은 해 12월에 한국도 강타하였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외환보유가 고갈됨으로써 동아시아의 외채개도국들은 금방 대외지급불능사태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위기는 기본적으로 달러에 고정된 환율체제였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국가 간의 금융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자본흐름에 더욱 더 노출되게 되며, 아무리 신흥시장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국제자본흐름의 격류에 홀로 대응하는 것

---

1) 1999년 출범 당시에는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국 중에서 11개국이 참여하였으나, 2001년 그리스도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12개 국으로 확대되었음. 2004년 5월 1일 EU가 동구권으로 확대되어 회원국 수가 25개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Euro를 단일통화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국가로 늘어났음.

이 어려우므로 집단적인 통화협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근 십년간 지난 지금 그 때의 위기는 물론 사라지고 경제도 많이 회복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외환위기의 재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주된 이유는 자본의 전 지구화 추이와 함께 단기투기 자본이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든다는 사실,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량의 외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는 이상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당사국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식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에서는 통화통합의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하게 되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한·중·일 3국 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규모는 비교적 작아 동아시아 화폐합작의 축심으로 될 실력을 구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2개의 가장 큰 경제 실체를 가진 국가로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어느 것이 진정하게 축심적인 화폐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화폐적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경쟁은 피면할 수 없는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전략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주요하게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주요화폐(위안화와 엔화)간의 화폐경쟁력에 대하여 비교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 중국 간의 경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중국 위안화의 부상에 관하여서도 일련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은 목전 동북아시아에서 다급히 해결해야할 시제는 아니지만 언제 발생할지 예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동북아시아 각 국에서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새로운 과제 이다. 즉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달러화를 지상주의로 생각해 왔던 의식을 타파한 유로화의 출범을 기초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력을 비교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력 규모가 큰 일본과 중국의 경제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보고서 및 논문을 통해 발췌, 정리 및 재구성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장으로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논문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 통화통합의 이론적 배경 및 필요성과 동북아가 경제 전 지구화 중에서의 지위에 관하여서도 제시하였다.

제3장 미 달러화의 약화와 유로화의 출범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달러와 유로화가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 한·중·일 3국의 양자 간의 무역투자 관계를 그래프로 설명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비교 하였다.

제5장 동북아 3국이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 및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위안화의 부상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 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제2장 동북아 통화통합의 배경 및 동북아의 경제적 지위

### 제1절 통화통합의 배경

#### 1. 통화통합의 이론적 배경

통화통합의 이론적 배경은 먼델의 ‘최적통화지대(Optimum Currency Area) 이론’이 제공하고 있다. 최적통화지대이론은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에 기초하여, 통화지대를 형성할 때의 최적 범위<sup>2)</sup>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통화통합의 '궤'의 측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하겠다.

최적통화지대란 지역 내부에서 일반적인 지급수단이 하나의 공동통화(common currency)이거나 또는 경상 및 자본거래에 대해 무한한 태환성을 갖고 통화들 간의 환율이 변동할 수 없게 고정되어 있지만, 그 지역 외부의 여타국들에 대해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이 동일하게 변동하도록 결성된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sup>

최적통화지대의 결성으로 인한 비용으로는 고정환율제도의 채택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자율성 감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대내외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수단의 하나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고정환율제도 또는 단일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예상되는 이득으로는 환 리스크나 환전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감소 등을 의미하는 화폐사용의 유용성 증대, 중심 통화당국이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참여국들의 경제안정 가능성의 증대, 외환보유고의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이 있다.

따라서 대상 지역들이 동일한 국가에 속하는 경우처럼 경제제도나 운영방식이 동질

---

2) 최적이란 대내외 균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때의 최적통화지대라는 것은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이 그 비용을 상회하는 나라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3) 송희영. 2000. 『외환관리론』. 삼영사. pp 112~115.

적이나 하는 점과 통화정책 이외의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유무가 최적통화지역의 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적통화지대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참가국들 간의 비대칭적 충격(Asymmetric Shock)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한다. 두 지역이 매우 상이한 외부충격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두 지역이 경제구조나 상황이 상이하거나 외부충격에 대처방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지역은 최적통화지대가 될 수 없다.

둘째,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에는 최적통화지대 참가국간의 불균형은 환율조정이 아닌 생산요소의 이동이라는 조정수단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지역이 얼마만큼 무역이나 투자를 통하여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가의 문제, 즉 두 지역 간의 상호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넷째, 해당국가의 각종 경제정책이나 경제상황의 결과를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사한지의 여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정책목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역재의 비중을 의미하는 개방성 정도이다. 이 기준은 McKinnon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교역재의 비중이 클수록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이 대외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국내가격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생산제품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소득격차에 대한 재정수단의 존재여부 등이 최적통화지역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sup>4)</sup>

## 2. 통화통합의 논의의 배경

### 가. 엔-달러환율불나의 파급효과 방지

외환위기는 그간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

4) 유재원·김태준. 1999. 「아시아 통화위기와 지역통화제도의 모색」. 『국제통상 연구』. 제4권 2호.

12. pp.4~6 참조.

취약성, 편중된 수출구조, 과잉생산이라는 실물부문과 과도한 외자유치와 취약한 금융구조라는 문제점을 모두 부각시켰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내적인 요인뿐만 아닌 엔-달러 환율의 불균형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강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 볼 때 개별국가의 국내적 정책 대안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여타 동아시아 각국 통화의 환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어지고 있다. Mckinnon(1998)에 따르면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달러화에 대한 고정 환율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라기 보다는 엔-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동아시아 통화와 일본 엔화와의 상대적 환율변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또한 1995년 4월 G7의 달러안정협약 이후 과도한 엔저현상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동아시아 통화 간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preciation)의 위험도 야기 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1년 연말부터의 엔저현상은 동아시아에 있어 또 다른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기 침체와 미국 경제의 회복 가시화에 따른 미국 일본 간 금리 차, 일본 통화당국의 엔저 요인 시사 등으로 인한 엔저현상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수출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부추겨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적인 수출구조로 인해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실업이나 초과생산, 기업파산 보호주의 대두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통화협력을 통해 역외국가의 환율불안정이 역내 국가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역내 환율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나. 달러화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 실수와 산업구조 및 금융구조의 내부적인 결합에 따른 국제투기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

---

5)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대체로 달러화에 편중되어 연동하고 있으며, 특히 NICS 국가들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등락은 수출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이는 해당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이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유동성인 달러화의 부족을 유발시켰다. 달러화의 부족은 외환위기 국가들이 건전한 시스템과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는 현상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안은 유동성을 빌리든 혹은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획득하는 가능한 한 보유자본의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외환규모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sup>6)</sup>과 많은 외화를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무리하게 유동성을 늘리기보다는 국제유동성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통화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비중에 있어서 역내무역비율이 50%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에 역내교역에 사용되는 거래통화를 통화통합을 통해 합의한 공동통화로 전환을 한다면 교역에 필요한 외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은 외환보유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유동성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외환위기와 같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독자적 성장 잠재력 확대

지금까지 동아시아 각국들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주된 시장으로서 미국 및 선진국에 크게 의존해 왔다. 특히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실물 거래에 있어서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의 영향력이 90년대 들어와서 다소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Kwan에 의하면 1970년대에 미국 경제가 1%성장을 하였을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1.5% 성장을 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미국 경제성장 1%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불과 0.3%~4%에 불과하여 이제는 역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sup>7)</sup>

---

6) 국제금융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하루 이동 가능한 국제 투기자본의 규모는 하루 1000억불 이상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결국 국제거래에서의 달러화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EU의 출범으로 인해 세계 통화의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달러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U 출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지역적 경제통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특정 지역 블록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역내국과의 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동아시아 시장 내의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교역량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교역량을 능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인해 역내교역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이 실현될 경우 환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절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수익성 증가 등에 의해 역내교역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통화통합이 실현이 되면 역내무역규모의 확대뿐만이 아닌 투자규모의 확대도 기대되어진다. 즉, 환율변동의 위험이 줄어들어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실물부문의 거래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자본투자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한다.<sup>8)</sup> 이는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교역규모와 투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통화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 라. 동아시아를 대변할 수 있는 대외적 블록의 필요성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구조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 통화기금(IMF)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를 공동의 단일 통화로 도입하면서 향후 세계금융구조의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는 지역의 경제 및 인구규모를 보면 충분히 달러화를 기축통

---

7) 1995년의 국제산업 연관 표를 통한 분석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최종수요(100억 달러) 변동은 미국에서의 생산을 약 6억 달러 유발하며, 반대로 미국의 최종수요 변동은 동아시아에서의 생산을 약 3억 달러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Molle and Morsink (1990)의 유럽시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환율변동이 낮을 수록 투자시장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화로 사용하는 지역의 규모에 필적하고 있어서 향후 세계금융시장은 달러화와 유로화의 양대 통화권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대 통화가 세노리지 획득을 위해 경합을 하든 아니면, 타협을 통해 통화권을 분리 하든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들과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양대 통화권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장구조는 동아시아 지역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동안 미국만이 달러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정책목표에 전념하는 이른바 benign neglect 환율정책을 써 왔지만, 유로화 출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러한 환율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 통화는 더욱 불안하게 되어 제2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달러블록과 유로 블록이라는 통화블록이 무역블록과 불가피하게 연계 되므로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아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득을 반영시킬 수 있기 위해서라도, 혹은 적어도 양대 블록 형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동의 통화권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9)</sup>

---

9) 유광현. 2002. "東아시아의 最適通貨바스켓 摸索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4-18.

## 제2절 통화통합의 필요성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 역내 통화협력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축 성장에 따른 금융 및 기업 부문의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그 원인이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촉발된 일본 엔과 동아시아 국가 통화들과의 환율불일치(exchange rate misalignment)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달러에 대한 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에 환율을 고정(pegged their currencies to the U.S. dollar)시키고 있었으며 이 국가들의 주요 수출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었음에 기인하였다.<sup>10)</sup>

또한, 1999년 1월 유로(Euro)의 출범도 동아시아 통화,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미국만이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정책목표에 전념하는 무해한 무시(benign neglect) 환율정책을 써왔는데, 유로의 출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해한 무시 환율정책을 취하게 되면 동아시아 통화가 더욱 불안해져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확산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1999년의 유럽의 통화통합을 계기로 하여 역내 각국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화협력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즉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환율안정에 따른 역내 교역 및 투자증진

동아시아 국가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2년의 경우 수출은 47.1%, 수입은 61.5%로서 역내 국가 간의 무역이 전체 교역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역내

---

10) 김영민. 2003."東아시아 最適通貨地域의 探索-衝擊反應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제74회, 박사학위논문. p. 1.

무역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만일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내 교역 및 투자규모는 더욱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통화협력이 교역을 신장시키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율변동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환율변동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헤징비용 등 환율변동에 따른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량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공동통화 혹은 장부거래 등으로 거래하게 되면 화폐교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달러화를 통한 거래에서 역내 통화를 기준으로 한 거래 혹은 공동통화를 기준으로 한 거래로 전환되어지면 국제유동성의 보유 여부에 의해 거래규모가 제한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거래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변동의 위험이 줄어들거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실물분야의 거래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통화를 통한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굳이 달러화가 없더라도 아시아 국가 간의 자본이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역내 국가 간 환율안정으로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

1997년 6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에까지 이어졌으며 이 지역의 경제 전체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정책적 실수와 내부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약점을 포착한 국제투기자본의 개입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제적 표현은 결국 이 지역 국가들이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유동성인 달러화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달러화의 잔고 부족이 국가들이 건전한 시스템과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현상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가장 단순한 방안은 유동성을 빌리거나 혹은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획득하는 등 가능한 한 보유자본의 규모를 최대한 늘



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이동 가능한 국제투기자본의 규모가 하루 1000억 달러 이상 동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제한된 외환규모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높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협력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통화협력방향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는 국제유동성 필요시 그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둘째는 국제유동성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다. 역내 교역에서 사용되는 거래 통화를 역내 통화로 전환하거나 장부거래를 도입할 경우 교역에 필요한 외환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3. 동아시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응블록의 필요성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 구조는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 통화기금(IMF)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유로를 공동의 단일 통화로 도입하면서 세계금융시장은 미국달러와 유로의 양대 통화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양대 통화가 화폐주조이익(seigniorage) 획득을 위해 경합을 하건 아니면 타협을 통해 통화권을 분리하건 아시아 지역의 통화들과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양대 통화권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장구조는 아시아 지역의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국만이 달러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내정책목표에 전념하는 무해한 무시(benign neglect) 환율정책을 써 왔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해한 무시 환율정책을 취하게 되면 동아시아 통화의 불안을 또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달러블록과 유로블록이라는 통화블록이 무역블록과 불가피하게 연계되므로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에 대한 타격을 통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혹은 적어도 양대 블록 형성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입을 수도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공동의 통화지역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통화지역의 형성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은 필수적 전제가 된다.<sup>11)</sup>

11) 김영민. 2003. "東아시아 最適通貨地域의 探索-衝擊反應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제74회

### 제3절 통화통합의 공동이익

지역적으로 가깝고 세계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통합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이익은 각각 다르다. 먼저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 부품의 수입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중국에서는 싼 노동력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국의 엄청난 양의 잠재적인 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된다면 해외 자본 유치에 큰 성과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는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중국은 기술력과 자본유치에 이익이 있을 것이며 일본은 노동력과 많은 잠재수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이익을 가지게 된다.

경제통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역내 국간의 일치성을 통해서 빠른 통합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통화통합이다. 이는 경제통합의 과정 중에서 마무리 단계에 가까운데 이런 화폐 통합의 필요성을 통화통합의 이익으로부터 알 수 있다.

#### 1. 거래 비용의 절약

공통된 통화의 도입으로 인해 전환과 관련한 환율은 지역 내 거래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환전할 때의 문제점 등은 없어지게 된다. 공통 통화의 도입은 환전 시 은행에게 지불되는 환전 차익금과 수수료를 제거시킨다. 이는 무역 시 드는 환전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어 무역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무역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된다.

## 2. 환율의 변화와 위험의 제거

단일 통화의 주요한 이득은 환율 가변성의 감소가 위험을 줄인다. 이는 결국 국경을 넘은 무역과 금융 거래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화통합이 지역 내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Frankel 과 Rose(2000)는 통화통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더 나아가 무역에 의해, 산출에 관해 두 단계의 접근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화통합이 무역의 3중 증가를 이끌어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무역 전환의 증거도 없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20년 간 무역의 GDP대비 1% 증가는 1인당 소득을 1/3 퍼센트만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통화통합이 경제 행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금융정책이나 다른 미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교역의 촉진으로 인해 얻어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몇 년 전의 연구에서, Klein(2002)은 Rose와 그의 동료들이 내놓은 몇 편의 논문과는 반대되는 증거들을 내놓았다. 그는 달러 통용화가 미국과의 무역을 증진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특히 달러통용화를 하고자 한느 지원국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경험적 발견은 무역에 있어서의 통화통합의 효과가 널리 퍼져 있는 경우와 한 국가, 즉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율 불안정성은 국가 간 자금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주체들이 위험 회피적이거나 철회 불가능한 투자 계획에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큰 불확실성은 투자의 흐름을 손상시킨다. 보다 정확하게,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자들은 파생 시장이 헤지(hedge)를 허용하는 환율 체제에 무관심할 것이다. 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은 환율 체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들은 헤지 할 수 없고 주로 상대적 노동력 비용이나 구매력과 같은 미시 경제적 변수에 주로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 3. 물가 안정성의 강화

물가 안정성의 확실한 성과에 대한 논의가 금융정책에 관한 이론들의 핵심에 있다. 최적의 금융 기관의 기본적인 특성은 금융 정책 운영에 있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물가 상승률 목표치라는 기본 틀을 통해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한 직무 집행에 있다. 제도적 기구로서의 통화통합은 금융 정책의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회원국들은 팽창금융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실물 경제에 갑작스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됨으로써 공공 채무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불가피하게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정책들을 수행하게끔 된다. 그러나 높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래서 이를 포기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금융 체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장을 도울 것이다. 통화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정부는 금융정책의 수단을 잃고, 따라서 물가안정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통화통합은 물가안정성에 기여한다.<sup>12)</sup>

---

12) 진기명. 2004.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과 세노리지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회도서관. pp.14-16.

## 제4절 동북아가 경제 전 지구 중에서의 지위

지리적 개념으로 획분 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삼국을 제외하고 또 몽골, 북한과 러시아 원동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활력과 시장연계성 각도에서 분석한다면 중국, 일본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핵심으로 구성되었고 인류가 지역경제 일체화를 연구 하는데 에서 중점 이었다.

대외 무역과 국경을 넘은 투자의 쾌속적인 증장은 전 지구화 경제의 주요 특징이다. 20세기이후의 10년 내에 전지구의 수입무역액은 0.9배로 증장하였고, 수출무역액은 0.8배로 증장 하였고, FDI 유입량은 5.3배로 증장 하였으며 유출량은 3.9배로 증장 하였다. 하지만 GDP는 0.4배 밖에 증장 하지 않았다. 무역과 투자 증장을 물론하고 투자의 증장은 모두 아주 선명하게 전국의 GDP 증장보다 높았다. 전 지구화의 배경 하에서 한 나라 혹은 지역의 경제 활력은 그 자신의 증장속도에서 체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유효 적으로 전 세계의 자원을 이용하는 가하는 것도 보아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자원이 상대적으로 결핍한 나라이다. 수출엔진의 제조업은 양국이 장기적으로 실행해왔던 경제발전 전략 이다. 그 결과는 바로 동북아는 이미 전지구의 제조업의 중심, 강철, 자동차, 화학공업, 조선 등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근 몇 년래, IT산품의 제조업은 동북아에서 가장 빠른 산업으로써 동북아 경제에 대한 공헌이 더욱 많을뿐더러 세계시장에서도 아주 강한 경쟁력을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일인당 평균 자원 점유량은 세계평균 수준보다 낮다. 과거의 20년간에도 외부시장의 리용에 고도로 중시를 돌려 수출자원 밀집 형 산품을 위주로부터 노동 밀집 형 완성품을 수출하여 연해지구에 건립한 수출 가공업과 대량적으로 수입된 원자재와 부품 또는 가공과 조립을 거친 제품을 해외로 팔고 있다. 중국의 공업화 및 외향적 제조업의 발전은 동북아가 세계제조업의 중심지위에 놓이게 하는데 큰 힘을 증강 시켜 주었다.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공동한 특징은 너무나 미국과 유럽시장의 수출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 이다. 미국과 유럽연맹에 수출하는 점유율은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총액의 비례보다 평균 50%이상이나 되고,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맹시장에 의뢰하는 정도 또한 35%이상으로서 만약 해외기업에 수출하는 것을 다한다면 그 비례는 더욱 높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동북아 지역 내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도 충분한 발휘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목전, 한·중·일 3국의 외화보유액은 도합 7000억 달러를 초과하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90년대 중기이후, 특히는 아시아 금융폭풍의 충격적인 영향을 받아 한국과 중국의 경제증장 속도도 아주 선명하게 늦춰졌다. 이런 정황 하에서 자원의 유출과, 더욱이 국가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 자산위험의 증대는 외환보유액의 증가와 다를 바 없었다. 목전 삼국은 모두 국내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지역 내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제품 분공과 자원배치를 잘한다면 구조조정의 자본을 낮추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 할 바가 아니다.

동북아 지역 내 시장의 확대는 무역과 투자 지간의 좋은 협력이 필요하다. 20세기 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본은 전 세계의 직접투자 유출량의 비중보다 20%나 높아 미국과 유럽연맹과 함께 전지구의 직접투자의 삼대핵심으로 되었다.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지역경제의 일체화를 중요한 역량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일본은 전 세계의 직접 투자 중에서의 지위가 점차적으로 하락되어, 2000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직접투자의 유출 총액 중 단지 2.9%밖에 점하지 못하였다. 또 한 일본이 대외투자의 50%이상이 유럽연맹과 미국에 흘러나갔으며, 중국과 한국의 투자도 단지 4.5%와 1.7%밖에 안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한국의 대외투자의 능력도 따라서 하강되었다.

2000년 동북아 지역 내의 FDI의 비중은 유입량으로 한다면 11%이고, 유출량으로 계산 한다면 6%이다. 이와 비교하면 유럽연맹 지역 내 직접투자의 비례는 아주 높은 것이다. 1998년 유럽연맹의 지역 내 FDI는 FDI 총량의 비중을 유입량으로 계산하면 52%를 차지하였고 유출량으로 계산하면 40%를 차지하였다. 유럽연맹 성원국 간의 호상 투자는 그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수입과 수출의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게 하여, 그 점유 비율은 각각 49%와 67% 이다. 북미 자유무역 지역 내에서 미국은 직접 투자하는 수출국이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직접 투자하는 수입 국으로서 투자가 이끄는 산업 전이는 지역 내 무역의 비중으로 하여금 선명하게 제고되게 하였다.<sup>13)</sup>

---

13) admin. 2007.4.29. "中, 日, 韩之间贸易和投资的关系". <http://www.info.feno.cn> .

# 제3장 달러와 유로화가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 미친 영향

## 제1절 미 달러화의 약화

지난 5~6년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약세기조를 지속해 왔다. 그런데 특히 2007년에 들어 미 달러화의 위상 약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어왔던 미국 금융 시장에서 촉발되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어 달러화 리사이클링 붕괴에 따른 미 달러화의 급락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무역 및 금융거래의 기축통화로 군림해왔던 미 달러화의 위상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미 달러화는 1999년의 유로화 출범 등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준비통화, 결제통화, 개입통화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면서 그 위상을 꺾이지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 FRB가 7대 교역상대국 통화를 대상으로 무역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산하는 미 달러화의 주요환율지수(major currency index)<sup>14)</sup>를 보면 미 달러화는 이미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의 최저치(1995)를 하향 돌파하였다. 이로써 2007년 10월 미 달러화는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2002년 2월 대비 약 34%(73.93)나 하락하였다. 교역상대국 통화의 범위를 26개로 확대하여 추산한 미 달러화의 확대환율지수(broad currency index)<sup>15)</sup>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미 달러화

14) 미 달러화의 주요환율지수는 유로화, 호주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일본 엔화, 스웨덴 크로나 화 및 스위스 프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는 미국 수출의 약 55%를 차지한다.

15) 미 달러화의 확대환율지수에 포함된 국가들은 미국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은 7대 교역상대국이다.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를 더해 구성하고 있다.

는 2002년 2월부터 약세로 전환되어 2007년 10월 현재 약 23% 하락한 99.80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에서 미 달러화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통화다변화 움직임이 미 달러화 약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로화가 출범한 1999년부터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1년까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미 달러화 자산 비중은 70%대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된 2002년부터 미 달러화 자산 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65%를 하회하고 있다. 반면에 유로화의 비중은 15~16%대에서 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엔화의 비중도 유로화 비중보다는 낮지만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

미 달러화는 준비통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결제통화로서의 기능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원자재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수출대금의 결제통화를 기존의 미 달러화에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자재 수출대금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원자재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7년 말부터 양자 간 무역의 결제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자국통화로 변경하기로 합의 하였다. 원유 수출국들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대금을 유로화로 결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sup>16)</sup>

미 달러화 페그(peg)제를 운용하는 국가들도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이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국통화의 절상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에 불 태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과잉유동성 문제를 초래하여 경제체질이 악화될 수 있다. 그것은 중국이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위안화 절상압력으로 인해 해외부문에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과열 및 자산 가격 버블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미 달러화 페그제를 포기하거나 페그 통화를 다른 통화로

---

16) 김은지. 2007년 10월 29일자. "굿바이! 달러패권시대". 「Economy21」.



바꾸는 국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실제로 최근 홍콩 통화당국은 미 달러화에 페그된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system)을 유지하기 위해 약 2주간 100억 홍콩 달러(1조 2,000 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외환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홍콩 통화당국이 페그 통화를 현행 미 달러화에서 중국 위안화로 변경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

17) 박해식. 2007. 「미 달러화 위상의 약화요인과 대응방안」. 『금주의 논단』, 제16권 45호. pp. 3~5.

## 제2절 유로화 출범 후의 모습과 그 성과

### 1. 유로화 출범 후의 모습

1999~2001년 동안은 EMU(유럽 경제 통화동맹) 체제가 순항을 계속했다. EMU 참가국들은 1999년 1월 1일후로 고정 환율 제도를 도입하고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했다. 그래서 EMU 참가국들은 유로존 (Eurozone) 을 형성하게 되었다. 환율변동 폭을  $\pm 2.25\%$  (일부국가는  $\pm 6\%$ )로 제한하던 유럽환율체제(ERM)대신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여 환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 바스켓 통화였던 ECU(유럽통화단위)는 1:1의 비율로 유로화로 전환되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금융 및 통화정책을 총괄하였다. 참가국 중앙은행은 통화량 및 금리정책 결정 권한을 ECB에 이양하였으며 ECB는 2002년 1월 1일 실물 유로화의 통용을 위해 지폐 및 주화 제작에 착수했다. 이 시기 EMU체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 속에서도 순항하였는데 EMU 출범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미국 헤지 펀드들의 공격이나 외부충격으로 인해 EMU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들도 많아 많은 걱정을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EMU체제를 견디지 못한 참가국은 탈퇴할 수밖에 없어서 EMU는 쉽게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유로화 출범 초기에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채권에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EMU체제는 그들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1999~2001년 동안 실체 없는 장부상의 통화여서 비 현금거래에만 사용되었던 EURO의 실물 모습인 지폐와 주화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로화는 실질적인 유럽단일 통화로 통용되었다. 2002년 3월 1일 부터는 유로화만이 유일한 법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전인 2002년 1월 부터 2월 사이에 12개국의 통화는 모두 유로화로 교체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기존의 통화는 법적통화의 자격을 상실했다.

EC 는 EURO의 사용으로 추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이는 금리인하 및 환 리스크 제거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경쟁증가 및 구조개혁에 의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말한다. 환 리스크의 제거로 금융시장의 통합이 촉진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져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경제만이 아닌 침체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EU의 경제적 통합으로 인한 EU의 정치적 통합에 크게 한발 다가서면서 유럽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 유로화 출범 후의 성과

유로의 사용이후로 단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1999년 이후로 유로존의 명목 및 실질 환율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유로존 내의 명목 환율의 변동성이 EMU의 출범으로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환율의 변동성도 과거 유럽환율체제에서보다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그럼으로써 역내 단일시장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이탈리아같이 경기부양책으로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던 국가들은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건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유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02년간 유로존 경제는 1994~98년과 비슷한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성장률에서 통일이후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했을 때의 성장률은 2.5%로 미국의 성장률 2.6%와 비슷한 수치여서 아직 유로화만의 변수로 성장률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유로존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초반대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회원국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여러 회원국 간의 경기 사이클과 인플레이션들이 다른 점은 ECB의 금융정책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경기 사이클이 회원국마다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공통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큰 무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현재의 2.0% 금리수준이 경제성장이 거의 제로인 상태인 독일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아일랜드나 그리스에게는 저금리가 물가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로존을 통한 유럽의 금융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EMU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거래비용과 환 리스크 제거를 통한 범 유럽금융시장을 만들어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

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거래가 대부분이고 국별로 상이한 체제와 법률이 적용되는 소매금융시장보다 도매 금융시장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EMU는 EU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42개 항목이 포함된 금융서비스 실천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을 2005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융기관들이 범 유럽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EU 차원의 감독체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유로존의 단기 금융시장은 단일통화 정책의 실시, 자금결제제도의 통화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는 2000년 6월 변동금리로 입찰방식을 전환하면서 유로화 표시 단기 자금시장이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범 유럽지급시스템으로는 EU 15개국의 유로화 표시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TARGET 시스템과 EBA (유럽은행연합회)의 순 결제시스템(EURO1)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EONIA (유로존 은행 간 예금금리로 이익물 자금시장 금리)와 EURIBOR (유로존 은행 간 예금금리로 1일~1년 미만의 유로화 자금시장에 적용되는 지표금리)가 단기 금리의 기준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이들 금리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이 등장하였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전에 존재했던 회원국통화 표시 금리선도계약들도 모두 EURIBOR 기준의 선조계약으로 대체되는 등 다른 파생상품시장도 확대되었다.

유로화의 환율은 1999년부터 2002년 초까지 유로화는 약세를 계속했다. 1999년 1월 1일 1.18달러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약세를 지속해 2000년 10월 25일에는 최저수준인 0.8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FDI(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자본이 유로존 에서 해외로 대거 빠져 나갔기 때문인데 이 자본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유입됐다. 1998~2001년 동안 4,000억 유로이상의 FDI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본다. 이는 유로지역의 총 해외직접투자액 중 미국에 대한 투자가 40%가 넘는 대단한 양 이었다. 또한 유로존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주식 매입을 위해 2,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해외주식 투자액은 총 6,500억 유로로 대미 투자가 30%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유로화는 2002년 봄부터 강세로 반전되어 2002년 7월 16일경에는 처음의 수준을 회복해 등가 수준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초강세를 지속해 2004년 말경 1:1.3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유로화가 강세로 반전된 것은 유로존 으로부터 미국으로 흐르던 자본 흐름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들의 유로화 표시 채권투자 증가와 유로존 내 거주자들의 달러표시 증권에 대한 투자 감소에 기인했다.

9.11 테러사태, 미국의 주가버블 붕괴, 미 기업들의 분식회계 스캔들 등으로 유로존 투자자들이 대미투자 분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처분하고 안전한 유로화 채권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유로존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유로존 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유로화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EU 는 유로화 출범으로 가격투명성 제고 , 환거래 비용 절감, 금융 및 실물 경제의 효율성 향상 등으로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과 고용, 물가, 정부재정이 경제상황에 수시로 변하고 국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또 1999년 이후 3년간 유로화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의 유로존 과 조금 더 발전된 유로존의 모습을 확실히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로존의 모습은 이렇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많은 문제점들은 많이 해결된 상태이고 이는 동북아시아 3국의 경제 통합에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유럽이 보여줬던 통합의 모습이 동북아시아국가들 더 나아가서 한·중·일 3국의 통합에 있어서 더 없는 좋은 자료를 남겨 줬었고 따라 배우고 많이 개선해야할 기초를 닦아주었으며 희망을 주었다.<sup>18)</sup>

---

18) 진기명. 2004.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과 세노리지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회도서관. pp.30~33.

### 제3절 유로화가 아시아 지역적 화폐금융에 대한 범적 영향

세계경제 통합화가 계속 직선적인 발전과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그 발전 과정 속에는 많은 모순과, 각 민족, 국가이익간의 평형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순의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수한 사례들로 그 통합과정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순이 얼마나 첨예하든지를 막론하고, 또 단기적인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세계경제통합은 부단히 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래의 100년, 전지구화 금융의 변천은 각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지역적인 통합으로부터 전 세계적인 통합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경제발전의 결과이고 동시에 또한 사회경제의 진보를 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이다. 금융통합화는 인류사회의 합리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또 대동한 전 세계금융 구조는 인류의 전통적인 금융관념과 경영방식을 개변할 수 있다.또한 금융의 국제화가 일으킨 시장의 일체화는 세계 자원으로 하여금 더욱 합리적인 배치와 유동을 하게끔 한다.

과거의 그러한 인위적인 제한과 국가별로 제한적 이었던 방법은 모두 소실될 것이고, 자원의 유효적인 리용은 전 세계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것은 발전도상의 국가들에게 많은 자원제공에 편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20세기 경제의 전 지구화는 금융의 국제화를 추진하였고, 전 세계의 투자와 무역일체화의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는 통일된 금융시장을 수요로 하여, 화폐정책의 합리적인 통합 및 화폐통합은 점차적으로 무역의 투자와 교역원가를 줄인다.

아시아의 발전은 시장 경제 속에서 발전하였고, 21세기시장경제의 별전은 더욱 빠르며, 경쟁력도 더욱 치열하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자기의 발전 공간을 찾아야 한다. 금융 폭풍 속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경제를 건립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지역경제의 경쟁 속에서 필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쉽게 국제금융 투기자의 목표로 된다는 것이다.

1994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화폐위기와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제금융투기의 목표로 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힘으로는 독립적으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며, 다른 국가의 협력과 합작도움을 받

아야만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제 3대 무역  
합작 국 이었다. 만약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유효적인 저지를 받지 못한다면 미국이  
멕시코에서의 판매액은 1995년보다 10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어 이는 무역적자가  
아주 높았던 미국의 대외무역형식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되게 한다. 때문에,  
미국을 수뇌로 하는 일련의 국가들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멕시코의 폐소를 구하  
기에 노력을 하였으며, 이로 하여 파운드와 리라가 유럽화폐체계에서 퇴출하게 되었  
다. 결과로 볼 수 있다시피 미국 등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투기자의 침범을 막아 냈  
지만 영국 등 나라들은 금융투기자들에게 패하였다는 것이다.

이번의 아시아 금융 폭풍 속에서 만약 일본의 엔화가 중국의 위안화 처 럼 견정함  
을 유지 하였더라면 이런 험악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었을 것이다. 일본은  
2240억 달러의 외화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며 9200억 달러의 해외 순 자산과 중앙은  
행이 접근하는 현 이자율은 근 3년래 줄곧 0.5%의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가 결국엔 스  
스로가 투기자의 손에 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지역경제의 진정한 합작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오래 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재부가 다른 사람의 공격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피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는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발전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노동력이 아주 충분하며 시장도 매우 광활하다. 근 몇 년간 과학기술도 비약적인 발  
전을 가져왔으며 세계적으로 일정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역에서 중국은  
일개의 경제 대국으로서, 대외무역은 70년대 말 세계 32위,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  
1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의 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여 “흡금대국 (吸金大国)” 이란 칭호를 받기도 하면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다.

일본은 세계경제 강국이다. 일본이 받은 금융위기의 충격은 엄청하였지만 그 실력이  
웅장하고 민간 사회가 풍요로우며 기술기초도 튼튼하여 일단 정책이 제 길에 올랐기  
때문에 복구는 자연히 빨랐던 것이다. 한국 은 금방 “부자클럽” 에 발을 들여 놓은  
신흥 국가로서 경제와 기술기초는 신흥 국가 중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다행히 금융 폭풍의 위기에서 벗어났기에 경제는 모두 고도의  
발전을 했었던 것이다. 1997년<<세계 경제 논평>>에서 보도한데 의하면 싱가포르의  
일인당 평균 수입이 전 세계의 제6위를 차지하여 일인당 평균 수입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초과하여 독일과 미국을 능가하였는데 그 당시 독일은 2.87만 달러, 미국은

2.85만 달러였다.

홍콩달러의 안정성은 홍콩이 국제 금융의 중심적 지위를 더욱더 온정하게 하였다. 강제적인 중국 위안화 와 안정적인 홍콩달러가 장기적 병존의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발전에 아주 유리하였다. 지금 세계는 국제자본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것은 이미 일개의 사실로서 그는 이미 대부분의 발전도상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견제하였다. 발전도상의 국가들은 우선먼저 자국의 경제를 국제경제의 일체화 중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하여 이제 다시는 발달한 국가의 원료산지와 상품 시장이 아니고, 더는 외국자본의 투자시장과 투기시장이 아니며, 발달한 국가의 생산 시장과 국제 고용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금융의 전세계화와 전 세계 화폐통합은 금융의 지역화와 지역화폐 통합에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시피 유럽화폐 통합의 발전과 유로화의 출범은 금융의 세계화와 화폐 통합에 중요한 첫 발걸음 이었고 아주 많은 실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역사에서 화폐 통합의 선례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주권의 통일이 항상 그 주요 문제점 이었다. 하지만 유로화의 휘황찬란한 역사가 바로 정권분립의 상황에서 협상을 통하여 실현한 화폐 통합 이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제적 금융의 동란이 폭로한 것이 바로 당전 국제 화폐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이었다. 미국이 연속 7년의 경제 성장과 외자영입으로 인해 미국 달러는 더욱 견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연속 6년간의 경제쇠퇴가 자금 유출과 일본 엔화가 시세에 떨어지게 되었고, 독일은 자국의 경제로는 도저히 국제 화폐 마르크를 지탱해 나가기가 어려워 졌다. 이리하여 세계 3대화폐의 구조는 평형을 상실해 갔다.

80년대 말로부터 환율은 크게 파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미국 달러대 일본 엔화의 환율은 최고치 1달러대 278엔으로부터 79.8엔으로 하락을 보이였다.1998년 6월 분에는 146엔으로 오르기도 하였으나 또다시 110엔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미국과 마르크의 환율도 최고치 1달러대 3.78마르크로부터 1.33마르크로 떨어졌다가 다시 1.90마르크로 올랐다. 이처럼 국제환율체계의 불안정함이 발전도상의 국가들의 대외 무역과 자본유동에 아주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구의 경영에도 엄청난 곤란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에는 국제투기자본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결핍하였다.

그 당시 국제금융의 혼란 속에서 투기자본이 시장을 조종하고 공제하면서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여 기타 투기자들의 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아주 엄청난 후과를 조성하였다. 특히 지금의 화폐제도는 발전도상의 국가에는 아주 불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화폐는 국제저축화폐가 아니기에 “화폐주조세 (铸币税)”의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없었다. 발전도상의 국가들은 환율의 추세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며 영향을 줄 힘도 없었을 뿐더러 환율의 파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결핍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하고 모험적인 외환 환율 교역방식을 피하고 그에 대처하는 도구를 다른 발전한 국가들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리에 대처할 자금도 추구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다. 유럽내부 화폐합작의 산물인 유로화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국제화폐합작의 신심을 고무해 주었으며 이로부터 미래 통일된 “세계화폐”의 추형을 보아낸 것 같았다. 유럽화폐의 계산단위와 화폐단위의 창설로부터 최종 유로화의 출범까지 유로화의 통합은 50년의 세월을 걸어왔다.

유럽연맹의 실친은 국제화폐 체계의 개혁에 귀중한 경험을 주었으며 아시아 나아가서는 동북아 3국이 화폐통합을 하려는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희망을 주었으며 동북아 3국이 통화 통합을 하는데 추진하고 보완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어 더 확고하게 자국의 금융안전을 확보하려면 지역적인 통합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sup>19)</sup>

---

19) 乐后圣 . 200.06.23. “ 和平时期的亚洲货币主权意识, ”. <http://www.info.feno.cn> . pp.12~13.

## 제4절 동북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의 방향

### 1. 동북아시아 통화협력 논의의 태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이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 회의 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동은 정례화 되었다.

특히 2001년 11월 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 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2년에 처음으로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 장관회의 및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 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研究中心(DRC), 일본의 綜合研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공동연구의 제1단계 주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일 3국간 무역 및 투자증진방안」이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에 한·중·일 3국간 투자증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동 공동연구의 결과는 공동정책건의와 함께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 앞서 3국 정상에게 보고 되도록 되어 있다. 2001년 공동연구 결과보고 및 공동정책건의에서는 구체적인 무역원활화 방안과 함께 이 정책들의 집행을 협의·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의 신설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2년부터 3국간 경제·통상장관 회의 외에도 재무장관 회의 및 외교장관 회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2년 공동연구 결과보고 및 공동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2단계인 2003년부터는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건의하였고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동에서 이를 2002년도 간사국이었던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하고 한·일 정상이 동의하는 형태로 합의 하였다.<sup>20)</sup>

또 다른 대화의 장은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에 관한 세미나이다. 한·중·일 3국의 연구기관과 3국 국제금융국장이 참여하는 동 세미나는 1999년 8월 제주도에 서 제1차 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2003년 2월에는 제 5차 세미나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의 세미나에서 3국 학자 및 정책 당국자들은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역금융협력방안, 환율제도, 각국의 금융개혁, 역내 채권시장 등 동아시아 및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문제에 관해 논의해 왔다.

이와 같이 이제는 ASEAN+3 체제와 별도로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 간에도 다양한 대화채널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 2. 논의의 방향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통화협력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축 성장에 따른 금융 및 기업 부문의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그 원인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촉발된 일본 엔과 동아시아 국가 통화들과의 환율불일치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달러에 대한 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고 있던 아시아개도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흐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으로 경제 정책의 독립성, 특히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

---

20) 언론에서는 「한·중·일 3국간 FTA 에 관한 공동연구」를 중국 주룽지 총리가 제안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중국 측이 한·중·일 3국간 FTA에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까지 있다. 그러나 사실 「한·중·일 3국간 FTA 의 경제적 효과」라는 공동 연구주제는 3국 연구진간 합의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21) 안중영, 2002,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와 동아시아 내 최근변화」,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pp.260~261.

비책을 서둘러 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의 재현을 방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1999년 1월 유로(euro)의 출범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의 통화통합(EMU: European Monetary Union)이 현실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다른 지역 국가들에게도 통화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선례를 제공했다.

위에서 언급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1999년 유럽의 통화통합을 계기로 역내 각국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화협력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논의 초기에는 역내국가간 환율안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에 논의의 초점이 주어졌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러 블록 및 유로 블록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역내 경제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통화통합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가 꾸준한 것은 통화통합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하는 경우 순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Eichengreen and Bayoumi(199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통화통합을 위한 유효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나라가 개방도가 높은 소규모 국가이다. 둘째, 국가 간의 무역관계가 긴밀하며 지역 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직접투자의 국경 간 이동이 크다. 넷째, 충격에 대한 조종속도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 다섯째, 유럽에 비해 수요, 공급의 충격들의 크기가 작고 높은 동행성(co-movement)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연구에 반해 동아시아 지역 내의 통화통합이 현실성이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동아시아 전체보다는 그중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sup>22)</sup>

즉 동아시아의 특정지역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지역이 동북아시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중에서도 발전이 가장 빠르고 무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며, 모든 위험을 막아나갈 수 있는 동북아 3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된다.

22) 권선희·유재원 . 2005. 「통화통합의 무역증진효과 분석」 . 『무역학 잡지』 . 제30권 5호 . pp.14~15.

## 제4장 동북아3국의 무역투자관계 및 중·일의 경쟁력 비교

### 제1절 동북아지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 1. 세계직접투자 추이

해외직접투자는 종종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 자본이 빈약한 국가로 이동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술, 경영기술, 경영기술 혹은 상표에 특별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독점적 대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수송비나 무역장벽에 의하여 이동되는 값싼 생산요소나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에 투자된다.

세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 급격히 감소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유 끌목할 만한 증가가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②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국가들이 해외생산을 증가시키고, ③ 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해외경영이 용이해졌으며, ④ 세계적 경쟁으로 기업들이 해외경영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1996년 3,861.4억 달러에서 2000년 1조 3,875.9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세계무역이 1.5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해외직접투자는 분명히 국제경제활동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에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3년에는 5,595.8억 달러로 2000년의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미와 동북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감소에 기인한다.

<표 4-1>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

(백만 달러)

투자지역/ 국가	1990- 1995 (연도평 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투자유입	225,321	386,140	478,082	690,905	1,086,750	1,387,593	817,574	678,751	559,576
한 국	978	2,325	2,844	5,039	9,436	8,572	3,683	2,941	3,752
북 한	14	2	307	31	-15	5	-4	-15	-5
중 국	19,360	40,180	44,237	45,463	40,319	40,715	46,878	52,743	53,505
대 만	1,222	1,864	2,248	222	2,926	4,928	4,109	1,445	453
홍 콩	4,859	10,460	11,368	14,766	24,580	61,939	23,775	9,682	13,561
일 본	1,144	228	3,225	3,192	12,741	8,323	6,241	9,329	6,324
러시아	1,167	2,579	4,865	2,761	3,309	2,714	2,469	3,461	1,144
몽 골	8	16	25	19	30	54	43	78	132
동북아시아	28,752	57,654	69,119	71,493	93,326	127,250	87,194	79,664	78,866
아세안	16,932	29,270	34,090	23,111	28,730	23,379	19,601	14,534	19,100
북 미	47,058	94,089	114,925	197,243	308,119	380,798	186,948	83,900	36,352
유럽연합 (EU)	84,165	110,376	220,953	249,931	479,372	671,417	357,441	374,000	295,154
중남미	22,256	52,856	73,275	82,491	107,406	97,537	88,139	51,358	49,722

자료출처: World bank, World Investment Report, 2002-2004.

동북아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96년 576.5억 달러에서 2000년 1,272.5억 달러로 약 2.2배 증가한 후 2003년에는 638.4억 달러로 감소하여 2000년의 약 50% 수준이었다. 1996-2000년간에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북아메리카지역에 4.0배, EU지역에 6.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저조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부진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1996년 292.7억 달러에서 1997년 340.9억 달러로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1.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1996년 23.3억 달러에서 1999년 94.4억 달러로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 29.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다시 증가하

여 2003년에는 3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강성노동조합 등으로 투자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였으나 최근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1996년 2.3억 달러에서 1999년 127.4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03년 63.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여타 지역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인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1996년 401.8억 달러에서 2000년 407.2억 달러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535.1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제1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국이 되었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타 세계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도 유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1996년 615.1억 달러에서 1998년 536.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1,067.3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여 2003년에는 47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각 연도의 동북아지역의 해외직접투자가 과거보다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이 풍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가장 많고 홍콩, 대만, 및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은 유입에 비하면 2003년에 3%에 불과하였다.

## 2. 한·중·일 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2001년에, 한국은 2003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면 제2대 및 제5대 해외직접투자국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투자 건수와 금액은 2002년 이전에는 일본의 대중국투자가 많았으나 2002년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국투자가 많았다. 이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에 의한 중국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중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한·중·일 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무역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중소기업에 의해 섬유·의류, 식품,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는 대기업에 의한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투자는 1990년대 엔고현상으로 인한 원가상승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세안에서 중국으로 투자를 전환하여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4-2> 지역별 및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

(백만 달러)

투자지역/ 국가	1990- 1995 (연도평 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투자유입	253,302	394,996	476,934	687,240	1,092,279	1,186,838	721,501	596,487	612,201
한 국	1,842	4,670	4,449	4,740	4,198	4,999	2,420	2,617	3,429
북 한	0	0	0	0	0	0	0	0	0
중 국	2,357	2,114	2,563	2,634	1,775	916	6,884	2,518	1,800
대 만	2,917	3,843	5,243	3,836	4,420	6,701	5,480	4,886	5,679
홍 콩	12,946	26,531	24,407	16,985	19,358	59,375	11,345	17,463	3,769
일 본	25,042	23,428	25,994	24,152	22,743	31,558	38,333	32,281	28,800
러시아	343	923	3,184	1,270	2,208	3,177	2,533	3,533	4,133
몽 골	0	0	0	0	0	0	0	0	0
동북아시아	45,447	61,509	65,840	53,617	54,702	106,726	66,995	63,298	47,610
아세안	4,771	12,233	12,538	4,225	9,360	7,516	17,476	5,955	7,842
북 미	65,003	97,522	118,838	165,362	226,638	187,301	160,986	141,749	173,426
유럽연합 (EU)	117,308	183,708	220,946	415,362	724,312	806,151	429,159	351,181	336,994
중남미	5,169	7,591	2,366	19,265	31,279	13,738	11,971	6,009	10,666

자료출처: World bank, World Investment Report, 2002-2004.



〈표 4-3〉 한·중·일 간의 직접투자

(단위: 건, 만 달러,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본의 대중국투자	건수			1,198	1,167	1,614	2,019	2,475	3,254
	금액			274,899	259,128	368,051	541,973	529,804	195,535
한국의 대중국투자	건수			1,309	1,547	2,565	2,909	4,008	4,920
	금액			164,085	148,385	238,582	348,740	528,222	917,716
한국의 대일본투자	금액				10,800	13,900	9,500	9,100	5,000
	비중				2.1	2.3	1.5	1.5	0.9
중국의 대일본투자	금액				174,900	244,800	77,200	140,300	54,000
	비중				11.3	16.1	6.8	15.4	8.4
중국의 대일본투자	금액	500	500	200	300	500	200		
	비중	0.1	0.1	0.0	0.0	0.0	0.0		
중국의 대한국투자	금액	300	300	300	1,300	5,700	7,000	24,900	5,000
	비중	0.1	0.1	0.1	0.0	0.6	0.0		

주: 1. 금액은 계약기준 금액임.

2. 비중은 각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자원부([www.mocie.go.kr](http://www.mocie.go.kr))

일본 재무성([www.mof.go.jp](http://www.mof.go.jp)) 통계.

〈표 4-3〉은 한·중·일 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는 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세계 전체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세와 비슷하다. 외환위기 후에 한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시행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999년 17.5억 달러에서 2000년 24.5억 달러로 증가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5.4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한·중·일 3국 중에서 중국은 가장 적은 자본을 수출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기업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3)</sup>

## 제2절 한·중·일 역내교역의 추이

2001년 현재 한·중·일 3국은 GDP와 교역 면에서 볼 때 세계 전체의 18.6% 및 12.0%를 차지하고 있어 NAFTA 및 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또한 한·중·일 3국은 ASEAN+3(한·중·일)과 비교할 때, GDP와 교역 면에서 각각 91.2% 및 67.2%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광의의 동북아지역 내 비중은 GDP와 교역 면에서 각각 92.5% 및 70.2%에 달해 절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5)</sup>

### 1. 한·중·일 3국의 대외교역 추이

<표 4-4>는 1990~2001년 한·중·일 3국과 전 세계의 대외교역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중 1998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한·중·일 3국 및 세계 전체의 교역이 꾸준히 증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평균 5.8%의 교역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대외교역은 각각 13.4% 및 6.9%의 증가율을 보여 세계평균에 비해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일본교역이 전 세계교역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각각 1.7%에서 3.7% 및 2.0%에서 2.3%로 높아 졌으나, 일본교역의 비중은 7.6%에서 6.0%로 낮아 졌다. 그리고 동 기간 중 한·중·일 3국 교역 전체가 전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12.0%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23) 강정모 외. 2005.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pp.245-250. (주)박영사.

24) 2001년 NAFTA와 EU는 전 세계 GDP에서 각각 36.8% 및 25.5%를 점유하며, 전 세계 교역에서는 각각 22.0% 및 36.3%를 차지하고 있다(Standard&Poor's DRI 2003).

25) 한·중·일3국에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 이 지역에 세계 및 광의의 동북아지역에서의 비중은 GDP 면에서 각각 19.1% 및 95.0%, 교역 면에서는 각각 15.2% 및 88.9%를 점유 한다.

〈표 4-4〉 한·중·일 교역의 추이

(백만 달러)

	한 국	중 국	일 본	세 계
1990	139,424(2.0)	116,569(1.7)	522,985(7.6)	6,898,980
1991	153,017(2.1)	135,841(1.9)	551,525(7.7)	7,127,990
1992	157,741(2.1)	167,491(2.2)	572,751(7.5)	7,640,750
1993	172,438(2.3)	195,315(2.6)	604,232(8.0)	7,516,100
1994	203,700(2.4)	236,570(2.8)	669,407(7.8)	8,573,630
1995	266,422(2.6)	281,118(2.8)	779,074(7.6)	10,216,150
1996	287,570(2.7)	290,114(2.7)	760,899(7.1)	10,687,280
1997	288,657(2.6)	325,080(2.9)	759,713(6.8)	11,118,560
1998	226,073(2.1)	324,129(3.0)	669,198(6.1)	10,927,190
1999	263,387(2.3)	360,649(3.1)	729,940(6.4)	11,488,880
2000	332,305(2.6)	474,291(3.7)	857,686(6.6)	12,990,800
2001	290,932(2.3)	467,005(3.7)	752,439(6.0)	12,546,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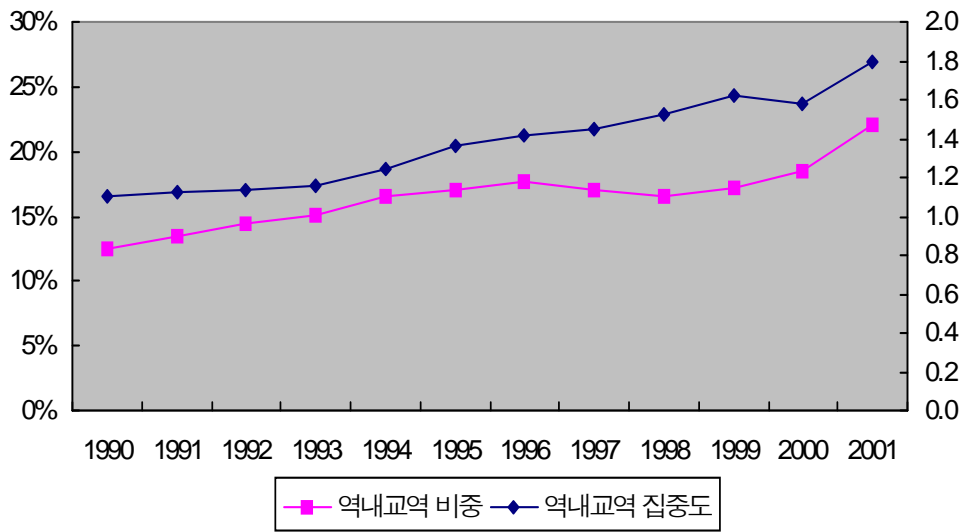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 세계 교역 내에서의 비중.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2.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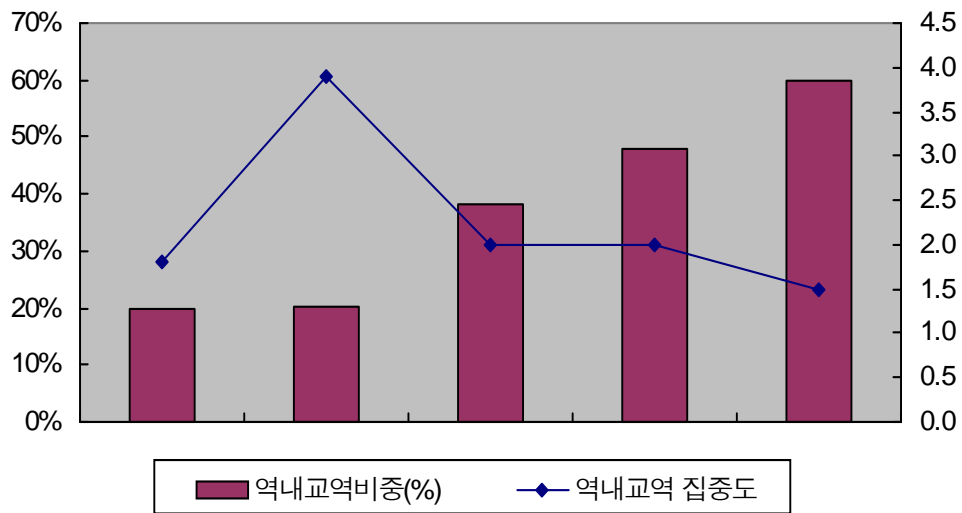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01년 사이에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12.7%에서 1996년 19.0%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해 그 비중이 1998년에는 17.4%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후 다시 반전하여 2001년에는 21.8%를 기록하였다.

<그림 4-1> 한·중·일간 역내교역 비중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2> 주요 지역 간 역내교역의 비교 (2001년)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러나 아직도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여타 지역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현재 ASEAN과 NAFTA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각각 22.8%와 46.6%이며, ASEAN+3 와 EU의 역내교역의 비중은 각각 38.1%와 59.4%에 달한다<그림 4-2참조>.

교역규모가 다른 지역 간 역내교역 비중의 단순비교는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룹이 클수록 역내교역의 비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 국가간 역내교역의 비중은 100%가 된다는 점에서 자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규모에 따른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역내교역의 집중도를 산출하며 이는 특정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수치이다.

1990~2001년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동 기간 중 역내교역 비중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동 기간 중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1990년의 1.1에서 2001년에는 1.8로 증가했다<그림 4-1참조>.

<그림 4-2>에서 2001년 현재 한·중·일 역내교역의 집중도는 EU(1.6)보다는 높으나 NAFTA(2.1), ASEAN+3(2.1) 및 ASEAN(3.9)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 국별 역내교역 추이

한국의 교역에서 대중교역과 대일교역을 합한 비중은 1990년 24%에서 2001년에는 26%를 기록하여 1990~2001년 사이에 비교적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 기간 중 1998년에는 그 비중이 21%로 하락한 바 있다[그림-3참조].

반면 동 기간 중 한국교역에서 미국이 점유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여 1990년 26%에서 2001년에는 18%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 한국교역에서 대미교역은 대일 및 대중교역의 합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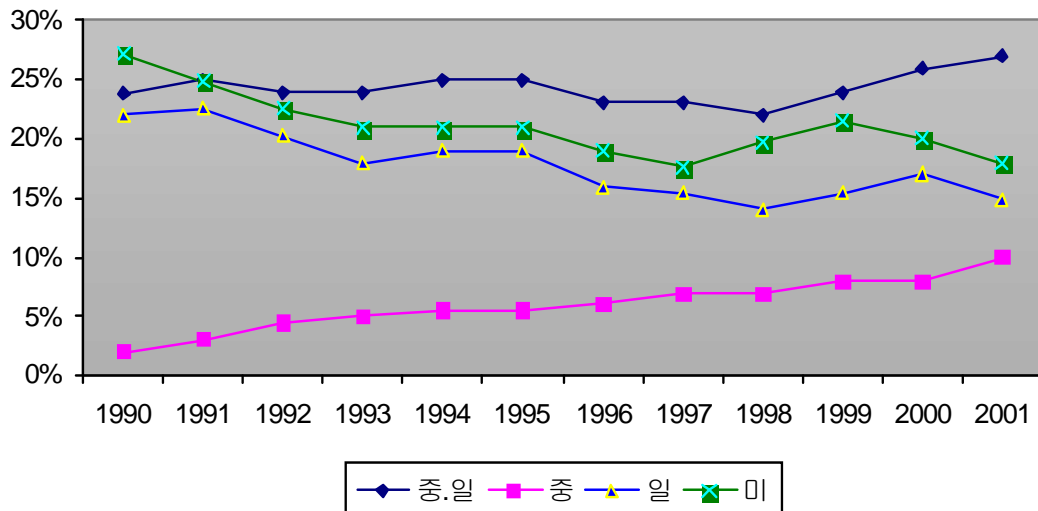
또한 동 기간 중 한국교역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는 크게 대조적이다. 대일교역의 비중은 1990년 22%에서 2001년 15%로 하락한 데 반해, 동 기

간 중 대중교역의 비중은 2%에서 11%로 급증하였다.

중국교역에서 한·일 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15%에서 1996년에는 28%로 급증하였으며 2001년에는 26%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대일교역의 비중은 1990년 14%에서 1996년 2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1년에는 19%에 달했으며, 동기간 중 대한교역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1990년 1%에서 2001년에는 8%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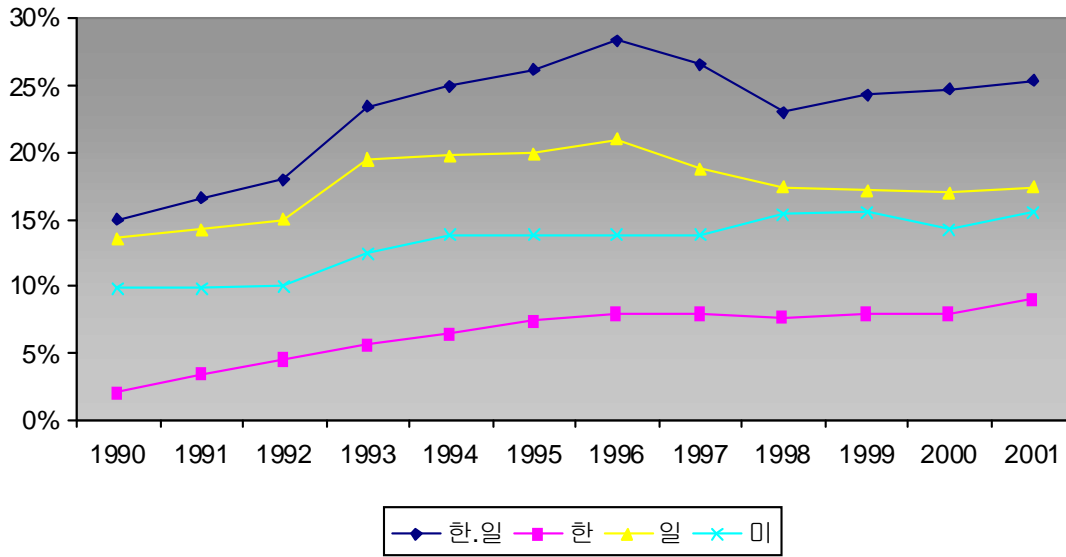
한편 교역의 상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내 대미교역의 비중은 1990년 10%에서 2001년에는 17%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대미교역은 아직까지 대일교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4-4 참조>.

<그림 4-3> 한국의 교역에서 중·일·미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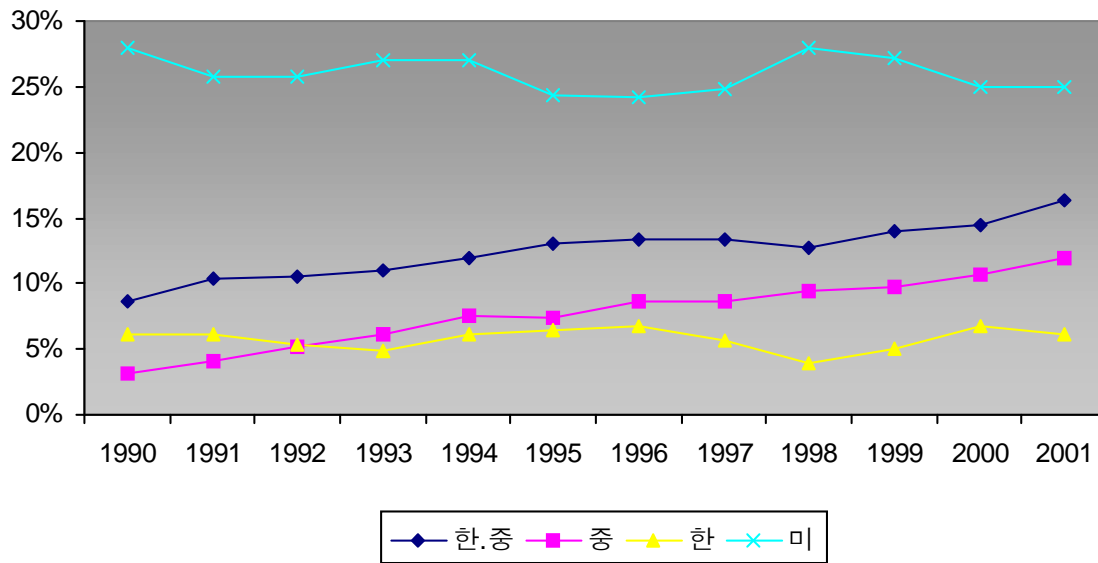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4> 중국의 교역에서 한·일·미의 비중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5> 일본의 교역에서 한·중·미의 비중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제3절 한·중, 한·일, 중·일 양자간 교역

### 1. 한·중 교역

#### 가. 교역추이

##### (1) 한국의 대중수출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수출은 1995~98년 3년간 1.3배로 증가하였으며 1999~02년에도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대중수출이 1998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반등하여 2000년에는 184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6)</sup>

1990~2001년 한국의 대중수출은 연평균 36.7% 성장하였으며,<sup>27)</sup> 그 결과 한국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9%에서 2001년 12.1%로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 측 통계에 기초하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추이는 한국 측 통계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측 통계와는 달리 동 기간 중 지속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990~2001년 기간 중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51.9% 성장하였으며<sup>28)</sup>, 그 결과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점유하는 비율은 1990년 0.4%에서 2001년 11.6%로 신장하였다.

##### (2) 한국의 대중수입

1990~2001년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보였다. 동 기간 중 한국의 대중수입도 연평균 17.4% 성장하여<sup>29)</sup> 빠른 신장세를 보였다.

26) 2001년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감소한 것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계경기가 회복되었던 2002년도 한국의 대중수출은 다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30.6% 증가한 237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KOTIS Trade Database).

27) 1990년대 초기의 예외적인 한·중교역의 급증을 감안한 1992~2001년 한국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 이다.

28) 1990년대 초기의 예외적인 한·중 교역의 급증을 감안한 1992~2001년 중국의 대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7.5% 이다.

29) 1990년대 초기의 예외적인 한·중 교역의 급증을 감안한 1992~2001년 한국의 대중수입의 연평균



나, 그 성장률이 한국의 대중수출보다는 낮았다. 그 결과 한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3.0%에서 2001년에는 9.4%로 증대하였다.<sup>30)</sup>

**<표 4-5> 한국의 대중교역추이**

(백만 달러)

년도	한국의 대중교역		중국의 대한교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585	2,268	433	236
1991	1,003	3,440	2,179	1,066
1992	2,654	3,725	2,438	2,623
1993	5,150	3,929	2,860	5,360
1994	6,203	5,462	4,376	7,318
1995	9,144	7,402	6,688	10,288
1996	11,377	8,538	7,527	12,485
1997	13,572	9,974	9,136	14,885
1998	11,981	6,488	6,266	15,021
1999	13,685	8,867	7,808	17,228
2000	18,455	12,799	11,293	23,208
2001	18,190	13,303	12,544	23,396

자료:IMF(2007),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나. 교역수지

<그림 4-6>은 한·중 양국 자료에 의한 한·중 간의 교역수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과 1991년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양국 모두 약간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중 간 교역수지 관련 첫 번째 특징은 양측 자료모두 1992년을 분기점으로 1993년부터 한국이 중국에 대해 흑자를 시현하기 시작한 후 2000년까지 그 흑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 측 자료에 따른 한국의 대중교역 흑자에 비해 중국 측 자료에 의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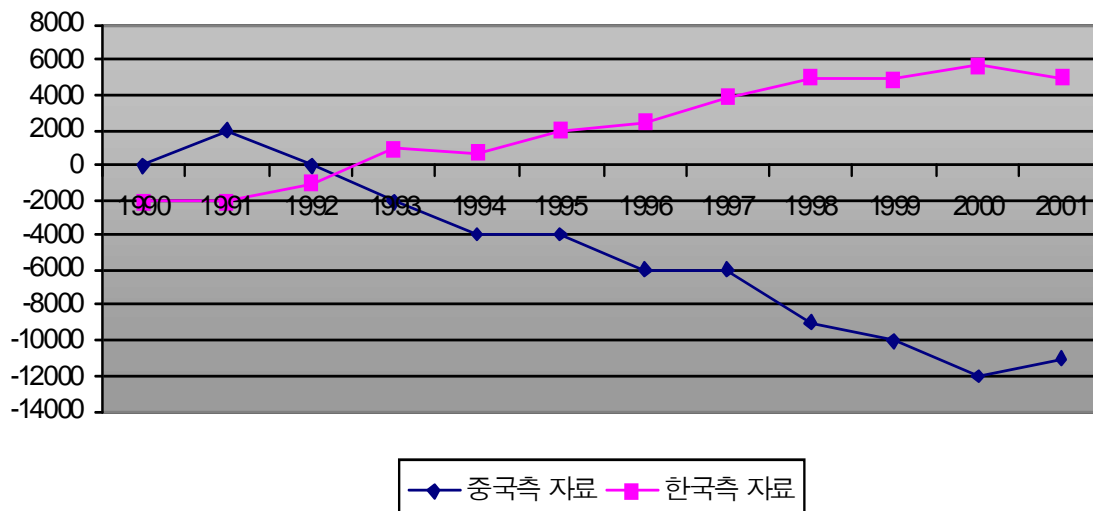
\_\_\_\_\_  
 30) 2001년 다소 낮았던 한국의 대중수입은 2002년에는 높은 신장률을 보여 1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KOTIS).

\_\_\_\_\_  
 30) 2001년 다소 낮았던 한국의 대중수입은 2002년에는 높은 신장률을 보여 1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KOTIS).

국의 대한교역 적자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현재 한국의 대중흑자는 48억 8,800만 달러인 데 반해, 중국의 대한투자는 108억 6,900만 달러로 되어 있다.

<그림 4-6> 한·중 간의 교역수지 추이

(백만 달러)



자료:<표 4-5>.

이와 같은 한·중 간 무역수지 규모의 격차는 한·중 양국 간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양국의 시각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주로 홍콩 요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2001년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81억 9천만 달러인 데 반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33억 8,900만 달러로 51억 9,900만 달러의 격차를 보이는 바, 이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의 일부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과정에서 중국통계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요인에 따른 이러한 한·중 간 무역수지의 비대칭성은 중·일 간 무역수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2. 한·일 교역

### 가. 교역추이

#### (1) 한국의 대일수출

한국의 대일 수출은 1990년대 초 감소세를 보인 후 19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1995년에 170억 4,8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시 감소하여 1998년 122억 6,200만 달러로까지 하락하였다. 199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04억 6,600만 달러로 최고점에 도달하였던 한국의 대일 수출은 2001년에 다시 감소하였다.<sup>31)</sup>

1990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2.5%에 불과 하였다. 그 결과 한국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9.4%에서 2001년에는 11.0%로 감소하였다<표 4-6>.

일본 측 자료에 기초한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이와 거의 같은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90~2001년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3.5%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의 총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01년에는 4.9%로 하락하였다.

#### (2) 한국의 대일수입

<표 4-6>에서 보듯이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4년부터 급증하여 1995년에 326억 6백만 달러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반전하여 1998년에는 168억 4,3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후 다시 반등하여 2000년 318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한국의 대일 수입은 2001년 또다시 축소되었다.<sup>32)</sup>

1990년~2001년 기간 중 한국의 대일수입은 연평균 3.2% 성장률을 보였고, 그 결과 한국 총수입에서 일본이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25.0%에서 2001년 18.9%로 하락하였다.

일본 측 통계에 의한 일본의 대한수출도 이와 흡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중 일본의 대한수출은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의

31) KOTIS에 의하면 한국의 대일 수출은 2002년에도 감소하여 151억 4,300만 달러에 달했다.

32) 2002년 한국의 대일수입은 다시 증가하여 298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KOTIS)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1990년 6.1%에서 2001년 6.3%로 증가하였다.

<표 4-6> 한국의 대일교역추이

(백만 달러)

년도	한국의 대일교역		일본의 대한교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12,638	18,754	17,500	11,743
1991	12,356	21,120	20,088	12,381
1992	11,599	19,458	17,786	11,596
1993	11,564	20,016	19,192	11,742
1994	13,523	25,390	24,361	13,524
1995	17,048	32,606	17,048	32,606
1996	15,767	31,448	15,767	31,448
1997	14,771	27,836	14,771	27,836
1998	12,262	16,843	12,262	16,843
1999	15,863	24,142	15,863	24,142
2000	20,466	31,828	20,466	31,828
2001	16,506	26,633	16,506	26,633

자료:IMF(2007),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나. 교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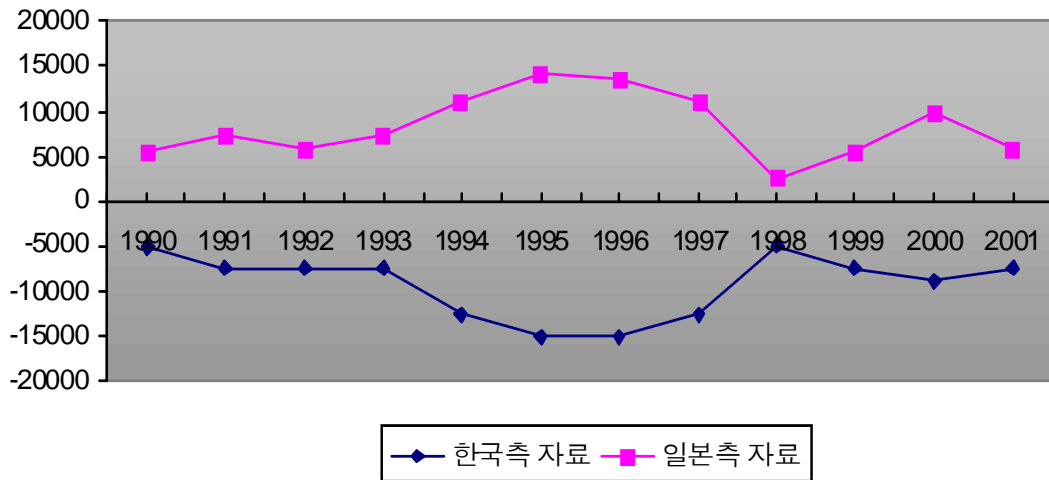
<그림 4-7>은 한·일간 교역수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일 간 무역수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대일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규모는 1990년 59억3,600만 달러에서 1996년 156억 8,200만 달러로 증가해 최고조에 달한 후 감소하여 1998년에는 45억 8,200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폭이 다시 확대되어 2000년에는 113억 6,200만 달러에 이르렀고 2001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sup>33)</sup>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통계에 나타난 한·일간 무역수지의 추이는 상당히 비슷하며, 단지 한국의 대일 적자 일본의 대한 흑자 폭보다 약간 큰 것으로 집계된다.

33) 2002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147억 1,3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KOTIS) .

<그림 4-7> 한·일간의 교역수지 추이

(백만 달러)



자료: <표 4-6>.

### 3. 중·일 교역

#### 가. 교역 추이

##### (1) 중국의 대일수출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중국의 대일 수출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대일 수출은 1990년 92억 1천만 달러에서 2001년 449억 5,800만 달러로 연 평균 1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총수출에서 일본이 점유하는 비중은 1990년 14.7%에서 2001년 16.9%로 높아졌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른 일본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대중수입 통계치가 중국의 대일수출 통계수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 120억 5,700만 달러에서 2001년 577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15.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 일본의 총수입에

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01년에는 16.6%로 증가하였다.

## (2) 중국의 대일수입

중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대체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1997년과 199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의 대일수입은 76억 5,600만 달러에서 534억 8,900만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16.9%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총수입에서 일본이 점유하는 비율은 1990년 14.2%에서 2001년 21.3%로 높아졌다<표 4-7 참조>.

일본 측 통계 따른 일본의 대중수출도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2001년 기간 중 일본의 대중수출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단 일본의 대중수출액은 중국의 대일 수입액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동 기간 중 일본의 대중수출은 61억 4,500만 달러에서 309억 4,800만 달러로 연평균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1990년 2.1%에서 2001년에는 7.7%로 높아졌다.

<표 4-7> 중국의 대일교역추이

(백만 달러)

년도	중국의 대일교역		일본의 대중교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9,210	7,656	6,145	12,057
1991	10,252	10,032	8,605	14,248
1992	11,699	13,686	11,967	16,972
1993	15,782	23,303	17,353	20,652
1994	21,490	26,319	18,687	27,569
1995	28,466	29,007	21,934	35,922
1996	30,888	29,190	21,827	40,405
1997	31,820	28,990	21,692	41,828
1998	29,718	28,307	20,182	37,079
1999	32,399	33,768	23,450	43,070
2000	41,654	41,520	30,356	55,156
2001	45,078	42,810	30,948	57,780

자료:IMF(2007),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나. 교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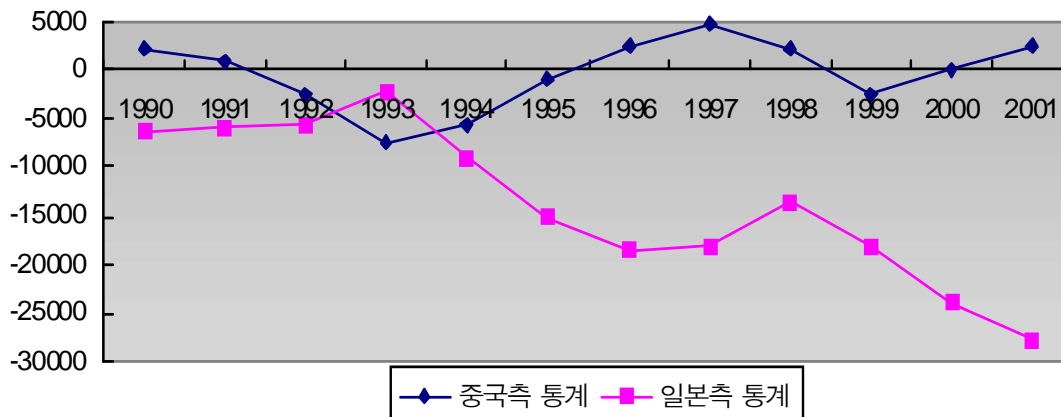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90~2001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1998년을 제외하고는 그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 측 통계는 동 기간 중 1990년, 1991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0년 및 2001년에만 중국이 일본에 대해 무역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1년의 경우 중국과 일본 통계가 모두 중국의 대일교역 흑자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통계가 중국의 대일교역의 흑자 규모를 21억 6,100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대중교역 적자는 268억 3,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은 중·일간 교역수지의 비대칭성은 앞서 한·중 간 교역수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홍콩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중·일간 교역수지의 추이

(백만 달러)



자료:<표 4-7>.

## 4. 한·중·일 3국간 교역집중도

한·중·일 3국간 수출과 수입이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 집중도(Intensity)를 살펴보기로 한다.<sup>34)</sup>

### 가. 한국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01년 기간 중 한국의 대일 수출의 집중도와 대중수출의 집중도는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일수출 집중도는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대중수출 집중도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수출 집중도는 1990년 2.9에서 1997년에는 1.7로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하여 2001년에는 2.0에 이르렀다. 반면 1990년 0.6에 불과하였던 한국의 대중수출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 3.7을 기록한 후 2000년까지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반등하여 3.9에 달했다.

한국의 대일수입 집중도와 대중수입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대일수입 집중도가 대중수입 집중도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일수입 집중도는 1990년 2.9에서 1993년 2.5로 감소한 후 반등하여 2001년에는 2.9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의 대중수입 집중도는 1990년 1.6에서 2001년 2.2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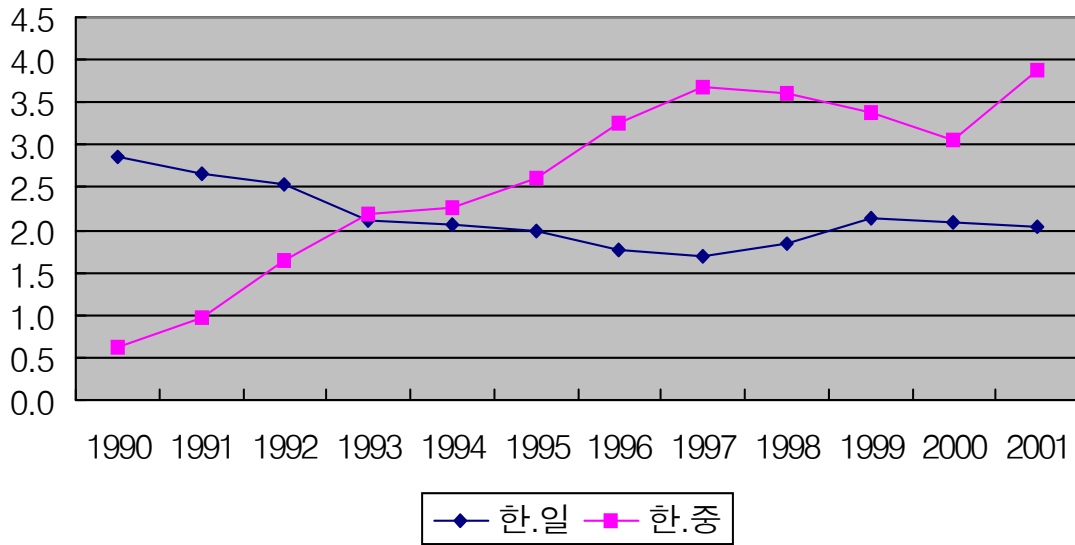
2001년 현재, 한국의 대중수출 집중도와 한국의 대일수입 집중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일의 대일수출 집중도와 한국의 대중수입 집중도도 2를 넘어,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은 수입대상국으로서 중요하다.

---

34) 예컨대 한국의 대중수출의 집중도는 한국의 대중수출이 한국의 총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중국의 총수입이 전 세계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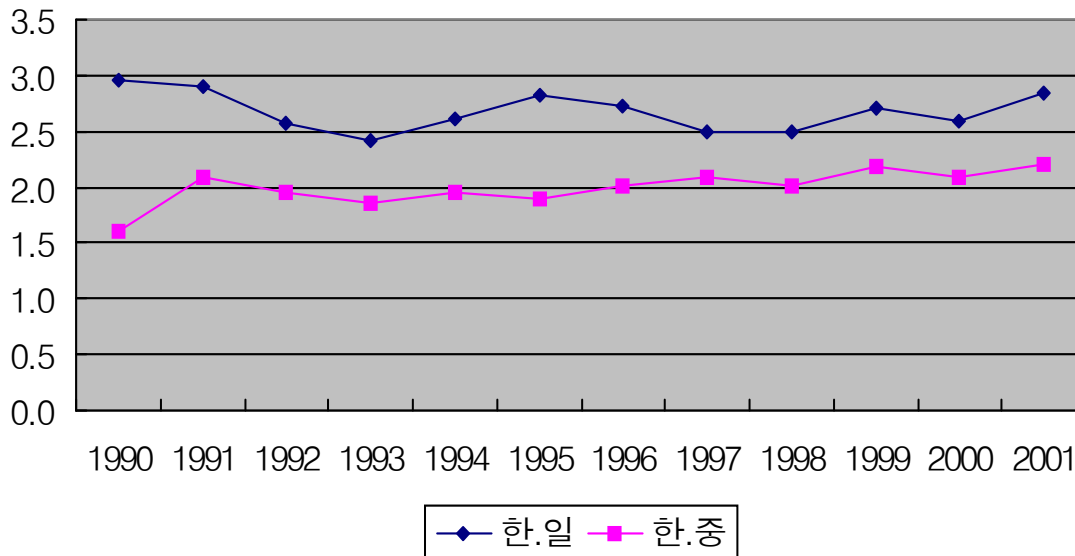


<그림 4-9> 한국의 대일 수출과 대중수출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10> 한국의 대일수입과 대중수입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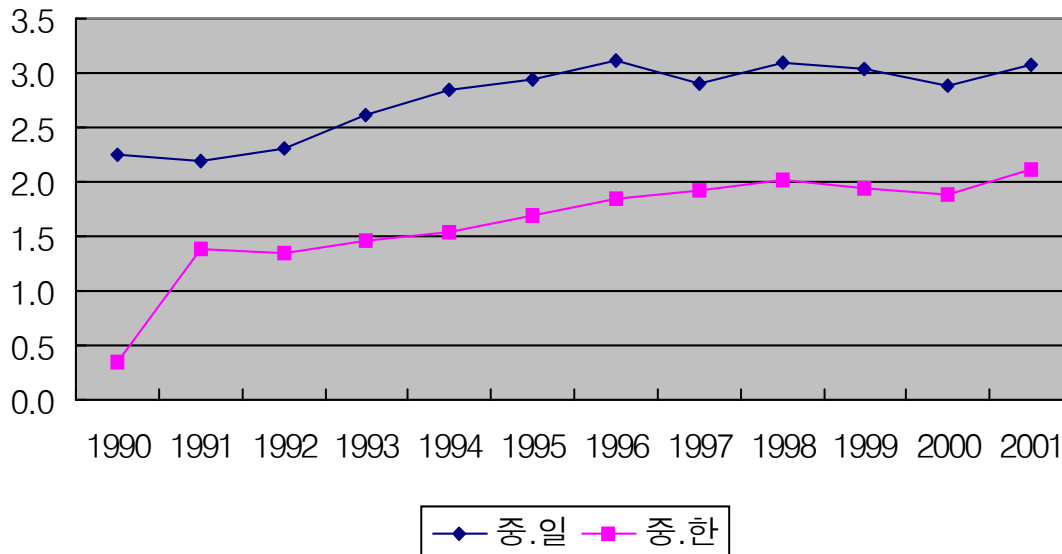
## 나. 중국

<그림 4-11>은 1990~2001년 기간 중 중국의 대일수출 집중도와 대한수출 집중도는 모두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대일수출 집중도가 대한수출 집중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일수출 집중도는 1990년 2.2에서 2001년 3.1로 높아졌고, 동 기간 중 중국의 대한수출 집중도는 0.3에서 2.1로 상승하였다.

<그림 4-12>가 보여주듯이 1990~2001년 기간 중 중국의 대일수입 집중도와 대한수입 집중도는 모두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한수입의 집중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대일수입 집중도는 1990년 1.7에서 2001년 3.2로 높아진 데 반해, 중국의 대한수입 집중도는 1990년 0.2에서 2001년에는 4.8로 상승해 대일수입 집중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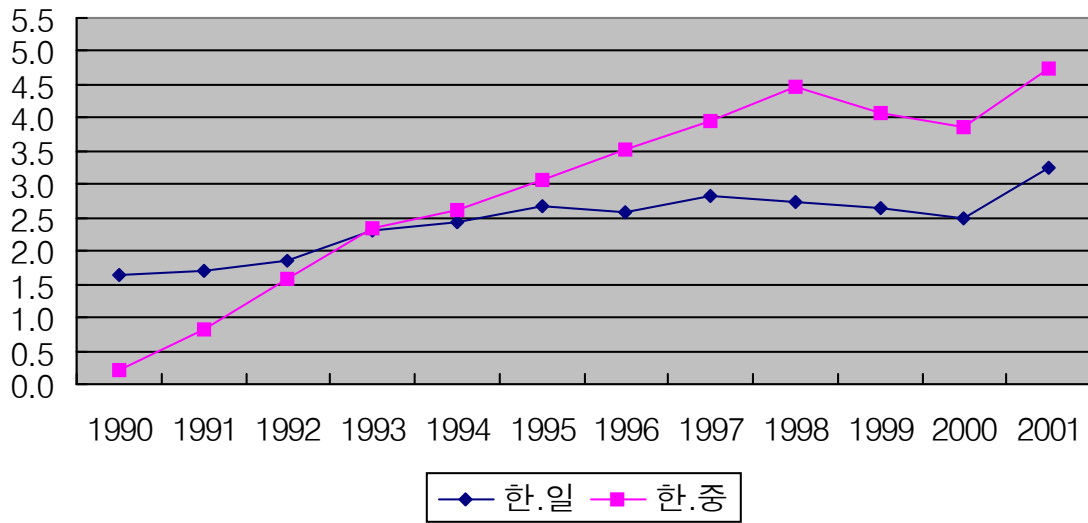
2001년 현재, 중국의 대한수입 집중도가 특히 높고 대일수입 집중도와 대일수출 집중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한수출 집중도 역시 2를 초과해, 중국의 일본과 한국간의 교역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중국의 대일 수출과 대한수출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12> 중국의 대일 수입과 대한 수입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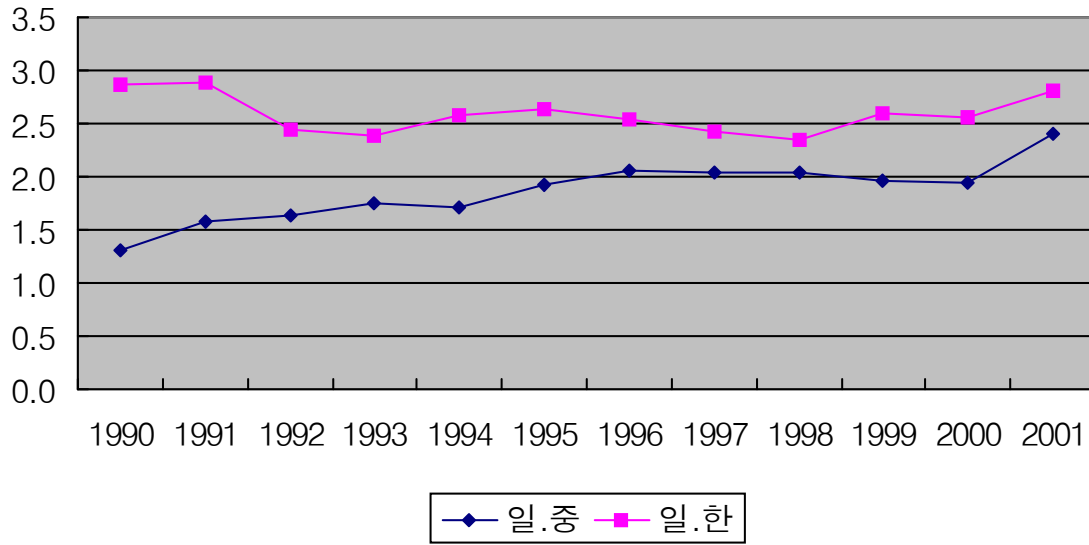
1990~2001년 기간 중 일본의 대한수출 집중도는 대중수출 집중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의 대한수출 집중도는 1990년 2.9에서 1993년 2.3으로 낮아진 후 등락을 반복하여 2001년에는 2.8을 기록하고 있다. 동 기간 중 일본의 대중수출 집중도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1990년 1.4에서 2001년에는 2.4로 상승하였다.

<그림 4-14>는 1990~2001년 기간 중 일본의 대중수입 집중도와 대한수입 집중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중 일본의 대중수입 집중도는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하여 1990년 2.8에서 2001년 3.8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의 대한수입 집중도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 1990년 2.6에서 2001년에는 2.0으로 낮아졌다.

2001년 현재, 일본의 대중수입 집중도와 대한수출 집중도는 매우 높으며, 대중수출 집중도와 대한수입 집중도도 2를 초과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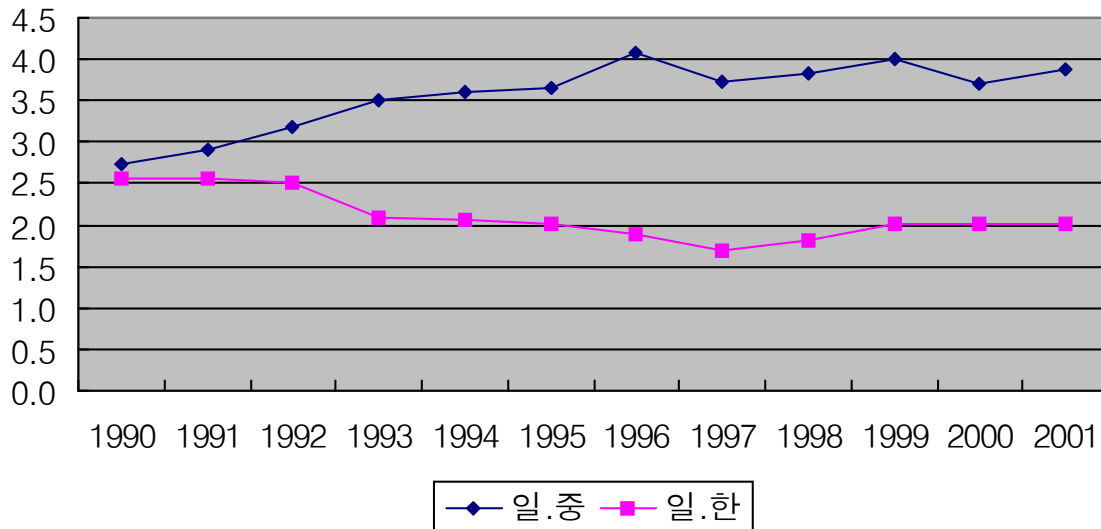
따라서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수출대상국으로 중요한 데 반해 중국은 수입 대상국으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5)</sup>

<그림 4-13> 일본의 대중수출과 대한수출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그림 4-14> 일본의 대중수입과 대한수입의 집중도 추이



자료:IMF(200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35) 안충영·이창재. 2003. 『동북아 경제 협력: 통합의 첫 걸음』.박영사.pp.15-33.

## 제4절 통화통합 과정에서 중·일의 경쟁력 비교

동북아 3국의 통화통합의 과정 중에서 중국과 일본은 지역 내의 가장 큰 두 개의 경제실체로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달러는 통합과정에서의 필연코 존재해야 할 화폐 경쟁 관계를 가진다. 중국, 일본 양국과 동아시아 지역 내의 성원국간의 무역 연계에서 화폐 가치의 안정정도와 그 명성 두 개 방면에서 본다면 중국 위안화가 일정하게 보다 우세적이다. 또 경제실력과 동아시아 화폐협조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행동 이 두 가지 면으로 본다면 또 일본이 비교적 선명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금융 체계의 발달 정도의 각도에서 분석한다면 위안화와 엔화는 그 어느 한쪽도 선명한 경쟁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교훈은 동아시아화폐금융의 융합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각 국가간의 공동한 인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화폐통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화폐를 지역 내의 각국가간의 환율을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닻” 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 이다.

유럽 화폐 체계가 건립 될 때 마르크의 지위처럼 동아시아 각국정부와 학술회에서는 모두 어떤 화폐를 선택하여 지역 내의 안정한 환율을 “명의 닻(名義錨)” 으로 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동아시아 연맹 10국과 한국경제의 규모는 매우 작아 동아시아 화폐협조에서 중심적인 실력은 아직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내 두 개의 최대 경제실체로서 위안화와 엔화 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심적인 화폐로 동아시아에서 진정하게 “명의 닻” 으로 될 것인가 에는 불가피한 경쟁이 있다.

동아시아 화폐 연맹 중에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현 단계의 경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화폐 협조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두 개의 지역적으로 강제적인 화폐가 환율의 분배와 유동성 지지 및 장래의 공동 화폐 등 문제에 대하여 지성어린 협조를 해야 한다.

화폐 경쟁능력은 아래와 같은 5가지 가 결정한다.

① 화폐 발행국가의 경제실력 ② 제조품 생산 영역에서의 비교적인 우세 ③ 발달한 금융체계 ④ 안정적인 화폐 가치 ⑤ 교역 시스템의 규모.

이상의 다섯 가지가 화폐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일본은 줄곧 아시아에서 경제의 주력군 역할을 하려고 꿈꿔 왔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엔화를 화폐지위를 주도하는 작용을 발휘하여 "엔화의 아시아화"의 실현을 빌어 "엔화의 국제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증장이 신속하여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많이 제고 되었기에 동아시아 통화협약에서 자기의 작용을 발휘하려고 한다. 중·일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치 역량으로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두 개의 가장 주도적이 될 만한 화폐이다. 때문에 양자는 불가피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의 이러한 문헌을 결합하여 중·일 양국 화폐경쟁 실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4 가지로 비교할 수 있다.

## 1. 중·일 양국의 경제실력 비교

경제실력은 한 개 국가의 화폐의 경쟁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일본의 경제 발전 정도는 중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도 중국보다 앞섰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의 경제는 10여년의 긴축통화 역사를 걸어왔기에 발전이 힘겹고 거품경제가 파멸 된 후로부터 경제 증장속도는 아주 낮다. 반대로 중국은 근 몇 년 동안 줄곧 강력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의 발전은 세계로 하여금 다시 주목하게 하였다.

그러나 목전 일본의GDP는 다만 미국의 다음으로 약 세계총량의 14%,아시아총량의 60%를 점하고 있어 영국, 독일, 프랑스 삼국의 총합과 맞먹는다. 일본의 일인당 평균 GDP는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총액은 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하고 있고 외화 보유액이 세계의 제1위이다. 동시에 일본은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국 이다. 이 모든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 증장을 추동하게 된 요소로서 그의 발전 잠재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의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이후 복구가 신속하여 GDP는 아주 높은 증장속도를 보존하여 국제적으로 중국경제의 증장 전경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2005년 12월 까지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8188.72억 달러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제 실력은 아직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비교적 선명하게 열세에 처하여 있다.

<표 4-8> 중·일 경제실력 부분 지표 비교

(단위: 억 달러)

년도	중 국				일 본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GDP	10815.00	11600.12	12381.86	14170.00	48170.56	41536.03	39933.20	41910.00
GDP增长率 (%)	8.00	7.50	8.00	9.10	2.80	0.41	0.32	2.70
人均GDP(美元)	853.00	921.00	986.00	1062.00	37574.00	32852.00	31300.00	32859.00
国际贸易总额	4743.00	5097.00	6208.00	8510.00	8587.00	7526.00	7539.00	8549.00
FDI流出量	9.16	68.84	25.18	18.00	315.58	383.33	322.81	288.00
FDI流入量	407.15	468.78	527.43	535.05	83.23	62.41	92.39	63.24
外汇储备	1165.74	2121.65	2864.07	4032.51	3616.38	4019.59	4697.28	6735.29

资料来源: [世界贸易组织《国际贸易统计2004》](#), [国际货币基金组织《国际金融统计年鉴 200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일 양국의 경제기초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국의 경제실력의 현황을 물론하고 또는 양국의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비교한다면 단기간동안 일본엔화의 경쟁능력은 중국 위안화보다 그 기초가 더욱 견실하고 그 우세도 아주 선명하다.

## 2. 중·일 양국과 동아시아 성원국간의 무역연계 비교

한나라와 지역 내의 성원구간의 무역량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화폐는 그 지역 중에서의 사용범위와 접수정도가 더욱 강하다. 그 주요원인은 교역 중 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사용하면 교역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환율의 위험을 피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중국이 아세아의 수출액은 도합 2955억 달러로서 당해의 총 수출 분액의 49.8%를 차지하고, 수입액은 도합 3695.3억 달러로서 총수입분액의 65.8%를 차지하였다. 10위 수출시장 중에서 홍콩지역, 일본, 동맹, 한국, 대만성은 각기 3-7위로 되었고, 도합 2586.6억 달러로서 당해 수출 분액의 43.6%를 차지하였다.

10위 수입 시장 중에서 일본, 대만성, 동맹, 한국, 홍콩지역은 각각 1.3.4.5.8위

를 차지하여 도합 2961.8억 달러로서 당해 총 수입액의 52.7%를 점했다. 단지 동아시아지역(동맹10국, 일본, 한국, 홍콩, 대만성지역)의 무역액 만해도 중국 당년의 무역총액의 48.1%를 차지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부터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은 아주 밀접히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동시에, 2004년 중국의 앞 10위 무역 역차의 내원 지역 중 대만 지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은 각기 제1.2.3.4.6.8위로서 무역 역차 액은 도합 1271.4억 달러 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과 무역의 안정적발전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도 날이 갈수록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증장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4일, 중국은 동맹국가와 2010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건립한다는 구조협의를 체결 하였다. 중국-동맹 자유무역협정의 형성은 17억 소비자에 총 국내생산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는 지역경제가 산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의 성원국간의 무역연계가 진일보 더 가강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근 몇 년간 일본은 수출 방향에서 현저한 변화를 발생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액이 1980년의 22%로부터 2001년의 39%로 상승하였다. 2003년 일본과 아시아 무역 총액은 450451억 엔으로 일본 무역 총액의 45.5%이고, 그중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수출액은 253183억 엔으로 그 전해보다 12.8%가 증가 되어 일본 수출 총액의 비중은 2002년의 43.1% 로부터 2003년의 46.3%로 상승 되었다.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197268억 엔에 달하고 이것은 그 전해보다 7.5%로 증가되어 일본수입총액의 44.5%를 점하였다. 중국-동맹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지 얼마 안 되어 일본도 동맹의 전면경제 파트너관계 구조를 체결 하였는데 그중에는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국 성원국간의 쌍무 자유무역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도 점차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가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내 무역연계의 긴밀성 각도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이 우열을 가리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 각국에 대하여 대다수는 역차적인 상태에 처해 있고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 따라서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수출 총액은 수입보다 선명하게 높으며 순차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이로서 중국이 지역 내의 무역방면에서 아시아 각국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돌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중·일 양국 국내금융체계의 발달정도 비교

중국과 일본의 국내금융체계는 모두 허다한 문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일본의 은행업은 거품경제가 과멸된 후로부터 줄곧 불량자산의 영향을 받고 있어 도산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본경제의 장기적으로 끝없는 하락은 또한 많은 은행으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대출을 아끼게 하여 이는 기업경영상화에 악화적인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일본정부는 사회신용체계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였다.

고객의 수요에 충실하고 고객의 보호를 완벽 화하는 제도, 예금 보험의 상한선 제도를 복구하여 중소기업의 용자가 순리롭게 진행 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금융기구의 처리 구조, 정보 공개제도 및 위험관리를 가장 등을 완벽하게 하였다. 중국의 금융체제도 매우 취약 하다. 금융 시스템의 불량채권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간접적인 용자비중이 지나치게 크며, 금융 관리 수준이 차하고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붕괴되어 있으며, 금융기구와 정부관계가 불투명하며, 자본시장의 불건전한 등 문제들이 중국의 금융체계를 곤혹하게 하고 있다. 목전 중국의 금융시장의 발육정도로는 중국 위안화가 지역성 주도화폐로의 요구와는 거리가 아주 멀고 금융체계(특히 은행계통)의 취약성이 비교적 높다. 근 몇 년 동안열린 금융개혁은 은행시스템의 불량대출의 비중을 다소나마 낮추었으나 발달한 국가의 동일한 지표보다는 여전히 높다. 그 외에 중국은 아직도 이율시장화를 실현하지 못했고 위안화도 자본 사항 하에서의 자유환전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이것도 또한 국내금융체계의 공능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국내 금융체계의 발달 정도로부터 고려 한다면, 위안화 와 일본 엔화의 경쟁우세는 모두 선명하지 않으며 모두 독립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화폐의 "锚"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 4. 위안화와 엔화의 화폐가치의 명성비교

지역화폐의 합작은 개관적으로"锚"화폐가 반드시 안정적인 화폐가치를 요구하여 파동이 경상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화폐의 지역 내에서 기타화폐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만 안정적인 환율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환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화폐 가치의 안정성은 주요하게 대외와 대내 두 개 방면에서 체현되는데 발행국의 환율과 통화팽창 환율로 나뉘어서 가늠할 수 있다.

환율각도에서 분석 한다면, 위안화는 일본 엔화보다 그 환율파동이 선명하게 작다. 그 원인의 첫째로는 중국이 아세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줄곧 미국 달러의 환율을 주시하는 환율정책으로 위안화의 환율을 안정시켰으며, 둘째로는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속증장을 유지하여 왔고 또 국내외 여러 국가에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증장을 좋은 전경으로 예기했던 것과 갈라놓을 수 없다.

목전, 위안화는 비록 환율 제도를 개혁하고 있지만 이 개혁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 시간 내 환율이 격렬한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 반대로 엔화는 환율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환율의 파동이 빈번하여 엔화가치의 안정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아세아 금융위기의 과정 중에서 중국 위안화는 환율의 안정성을 보존하여 세계적 범위 내에서 고도의 명성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찬양을 받았지만 일본 엔화는 오히려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엔화의 안정성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sup>36)</sup>

---

36) 郭华. 2006.11.18. 「东亚货币合作中中日货币竞争力比较」. 『金融教学与研究』. pp.2~4.

## 제5장 동북아 3국이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 및 중국 위안화의 부상

### 제 1 절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

일체화로의 세계경제는 일본의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제이고 또 일종의 자본유동으로 인도하는 자원배치의 경제이다. 때문에 금융은 이러한 경제의 움직임 속에서 아주 특수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다. 만약 기술영역 중에서의 새로운 창조가 공업발전의 중요한 표지라고 한다면, 금융 구조의 새로운 창조가 세계경제발전의 중요한 표지이다.

현대 금융의 새로운 창조는 발달한 시장 중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의 기원과 본질로부터 본다면 때는 모두 세계경제의 발전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의 새로운 창조는 용자의 방식으로의 창조와 금융시장의 새로운 창조가 전 세계 금융업의 혁명적 변화를 야기 시켜 세계의 경제에 일종의 새로운 특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 목전 세계금융위기의 거듭되는 발생은 또한 금융과 새로운 창조의 마찰과도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의 새로운 창조의 파도에 순응하고 또 이러한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것은 이미 아세아 국가의 더욱이 전 세계 금융체계에 있어서 한 개의 중대한 주제이다.

근 몇 년래의 실천이 이미 증명하다 시피 화폐의 정치적 속성은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점차 열어지기 시작 하였고, 화폐의 경제기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례 없던 중시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간의 화폐 금융의 합작도 이왕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모두 동북아 화폐지역의 건립에 조건을 창조하여 주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은 반드시 용기를 가져야만 이용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계속 현실에 구애받고 전통적인 사유방식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현유의 화폐구조에 대해서는 대담한 돌파를 가져오기 힘들 것 이며 따라서 동북아의 화폐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지금은 동북아 각국의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어 동북아 개발은행을 건립하고 통일된 통화를 발행하여 동북아의 화폐로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각개 주권국가의 화폐로 화폐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화의 통합을 실현하려면 아래와 같은 전략 및 구상이 필요하다.

## 1. 동북아 개발은행의 구상

동북아 지역의 경제 개발과 역내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지역 내에 교통 및 통신의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와이 동서 문화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동북아 경제포럼] (회장 조이제)은 일찍부터 이 문제에 착안하여 동북아의 교통, 통신 분야의 지역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고, 각국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를 위해 필요한 내자와 외자를 어떻게 조달 하느냐 하는 것이다.

## 2.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 이유

먼저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시설, 전신, 전화 등의 통신시설, 교육,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에 막대한 내자와 외자를 필요로 한다. East-West Center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고로 할 때 동북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는 매년 약 \$75억이 소요되나, 현재의 선진국 원조, 국제금융기관 (IBRD 및 ADB), 각종 민간 투자 및 상업금융 등으로 조달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원을 최대한으로 추정해 보아도 약 \$25억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자금 원을 창출해야 동북아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숫자적 추정이 아니더라도 동북아에는 중국, 시베리아와 같은 거대한 개도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존 IBRD와 ADB의 재력만으로 동북아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는 투자할 곳을 찾는 다양한 재원이 있다. 문제는 그 자금을 동북아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앞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또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되면 남한이 북한의 경제개발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충분한 재력이 없다. 만약 동북아개발은행이 창설되면 한국의 부담을 국제금융계에 전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의 경제적 통합에 대비하여 NEADB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은 시대적 요청인데 그를 위하여 교통(육운, 해운, 항공) 및 통신수단의 networking과 같은 다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국 간 협력 사업은 다국 간 지역개발은행을 매개로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UNDP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이 3국간의 의견 차이로 지지 부진한 이유는 이 사업을 자금 면에서 통괄 조정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북아 개발은행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비단 금융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경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 국가의 경제 문제와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지역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계몽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IBRD, ADB 등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에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고와 북한이 있으므로 개발은행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운용 원리, 경영 방식, 제도, 관행 등을 이들 국가에게 전수(傳授) 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이들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여 선진국들의 이해와 지원을 유도 할 수도 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경제질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북아의 OECD 국가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북미주와 EU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지역적 경제협력체제가 전무한 상태이다. 1989년에 발족한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 개국 및 대만을 포용하는 국제적 협력 기구로 등장했지만 경제 규모, 경제 발전단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의 실적이 거의 없다. 반면에 APEC 역내에는 NAFTA, ANZCER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SEAN등의 하위(下位) 지역 협력체가 보다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동북아 국가들 만이

지역협력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북아 국가들이 지역 협력체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주로 정치적 장벽과 국제적 협력에 익숙하지 못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상태를 체념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협력체를 모색할 때가 왔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시작 할 수 있고 효과가 큰 지역협력체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역내 역외에서 동북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일본은 ADB를 창설하고 동 은행의 총재직을 독점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 일본에서 Asian Monetary Fund의 구상을 발표하였다가 서방국가의 냉대를 받은 바 있거니와 먼저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역내 교역에 yen화가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범위를 넓혀 갈 때 Asian Monetary Fund가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참가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먼저 역내의 개도국들은 출자액의 몇 배 혹은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진권의 출자국들은 융자는 받지 않지만 개발은행 자금으로 시행 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 조달에 있어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 교역, 시장 관리 등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은 각종 천연자원-광물, 에너지, 용수, 산림, 농작물, 토지, 노동력 등-의 寶庫이니 자원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이 지역의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서 얻는 이익은 출자액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일본의 전 外相 (현 중의원 의원) 中山太郎씨는 1998년 일본 요나고 회의에서 기초 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창하고 그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동북아지역이 개발 됨에 따라 다양한 자본재와 용역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니 역내, 외의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수출과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에서 참가국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참가국이 부담하는 현금 출자액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 참고로 ADB의 경우를 보면 총 현금납입자본금은 총 청약자본금의 7%에 불과하다.

선진국이 역내 개도국 경제개발에 참여함에 있어서 쌍무적 접근보다 다자간 접근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국제거래에 투명성이 요구 되는데, 선진국이 쌍무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추구하면 경제적 침략 또는 지배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고 국제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참가국간의 정보 교환과 다자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최근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금융과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는 장기 투자에 단기 금융을 이용한 다든가, 은행 및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없다든가,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든가 하는 등, 동북아 공통적 약점을 해소함에 있어서 동북아개발은행은 IMF, IBRD, ADB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상기한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개발은행에 이사와 직원을 파견하고 그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국가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해 나가면 정치적 대립관계가 완화 내지 해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 3. 주요국에 관련된 정치적 의의

일본은 동북아 국가 들에 대한 만성적 무역흑자의 일부를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하여 이 지역 발전에 기여케 하면, 그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부채를 보상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쌍무적 방식보다 다자간 협력의 방식으로 이 지역 경제 개발에 기여 함으로서 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서의 지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역외국가로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세력 균형을 위한 하나의 대항세력(Countervailing Power)으로서 세계평화와 지역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의미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여전히 균형화 세력으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외교정책은 이른바 Policy of Engagement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포기한다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들의 경제 원조를 통하여 평양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함축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이 목적과 완전히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한편 경제면에 있어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시장과 경제발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북아개발은행에 참가 함으로서 이 지역에 하나의 제도적 거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개발은행의 주요 채무자가 되겠지만 그 거대한 경제 규모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의 주요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참가하게 되므로 그를 통하여 이들 4강사이의 상호 협력의 기운(氣運)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들 4강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 4강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까다로운 과제인데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하여 4강 사이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고 협력의 기운이 조성되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출자국 부담

동북아개발은행을 세운다면 참가국에게 출자 부담이 돌아가는데 일본, 한국, 중국 등의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me page에서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결론만 요약하기로 한다. ADB의 선례와 기준을 따른다면 수권자본은 \$4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정도면 동북아는 ADB와 버금가는 은행을 가질 수 있다.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참가국들이 주식을 청약하게 되는데 청약을 하면 참가국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ADB 및 기타 지역개발은행의 선례를 보면 은행 설립 시에는 청약자본의 50%는 현금으로 납입하되 나머지 50%는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Callable Capital로 지정한다.

다시 말하면 Callable Capital은 은행이 불측의 사태로 차입금 상황이 어려워 질 때 납입을 요구하는 자본금으로서 현금으로 납입하지는 않지만 주권국가가 은행의 채무이행을 완전히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존의 모든 개발 은행은 이러한 Callable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 한번도 call 조항을 발동한 일이 없다. 그리고 현금(국제통화)으로 납부하는 납입자본의 경우에는 5년 분할 납입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창업 당시에는 납입자본금과 Callable capital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였으나 창업 이후 수차의 증자(增資)의 경우에는 Board of Governors의



결의에 따라 납입자본 비율을 5-10% 정도로 하향 조정했고 심지어 증자 전액을 Callable Capital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그 결과 1999년 9월 말 현재 ADB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권자본 \$484억, 청약자본이 \$478억인데 대하여 Callable 자본이 \$445억 이고 납입자본은 \$33억 (청약 자본금의 7%)에 불과하다.

ADB의 선례에 따라 출자국을 역내국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국 (미국 등의)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납입자금 총액을 \$200억 (납입자본=청약자금의 50%)으로 하고 역내, 역외의 배분 비율을 6대4로 (ADB와 비슷함) 한다면 역내국가의 출자부담은 \$120억으로 줄어든다. 이 금액을 역내 각국에 배정하여 5년 분할로 납입하게 되는데, 몇몇 나라의 년 간 부담을 추정해 보면 일본이 약 \$10억 내외, 중국과 한국은 \$3-4억 정도가 될 것이다. ADB의 경우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출자비율을 유지해 왔는데 그 선례를 따른다면 미국의 부담도 5년 동안 매년 \$10억 내외가 될 것이다.

ADB는 개점 이후 오늘까지 \$33억의 현금자본을 밀천으로 하여 그의 25배가 되는 \$871억의 재원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했다. 요컨대 ADB는 그 자본력이 아니라 역내 주권국가의 공신력을 (Callable Capital이라는 형식의)을 지렛대로 하여 그만큼 재원을 조달하여 역내 개도국에게 공급한 것이다. 이점이 바로 개발은행이 민간 상업금융과 다른 점이다. 불과 \$33억의 불입자본금으로 그만큼 자금을 동원 한다는 것은 민간은행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이 점이 NEADB가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유력한 이유가 된다.<sup>37)</sup>

---

37) 2000.3.17. "동북아 개발은행의 구상-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http://www.dwnam.pe.kr/jiam3\\_2.html](http://www.dwnam.pe.kr/jiam3_2.html).

## 제2절 중국의 고도성장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구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21세기에 중국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견해는 결코 무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갈수록 "중국 위협론"이 득세하는 것이나 "No라고 해야 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나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중국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처음 개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과 같은 경이로운 변화가 생기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혁 초기에 등소평이 20세기 말까지 중국의 국민소득을 4배로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캠페인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정을 크게 앞당겨 1995년에 이미 이 목표를 실현했다.

외국인들은 중국에 갈 때마다 도시의 빌딩 숲과 자동차 대열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전에 자전거 한 대를 사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쿠폰을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는 오토바이를 사는데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중국도 이제는 소비자가 주권을 갖는 공급과잉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그 성과를 충분히 과시했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가 사상 최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은 거액의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위안화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98년과 99년에도 여전히 연속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물론 중국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계속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다양한 나라가 연속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유지해 온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중국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가 세운 고도성장의 기록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해지역의 몇 개 성(省)은 그 면적과 인구로 보아 모두 아시아의 각 NIEs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10년 이상이나 연 평균 15%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경제발

전 역사에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빨랐던 아시아 NIEs를 초과하는 기록이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개혁이었던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이 성공한 원인과 특징을 연구해 왔으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러시아나 동유럽의 개혁과 비교하면서 활발한 논쟁을 벌여 왔다. 예를 들면 Sachs & Woo(1993)는 중국과 러시아 경제개혁의 초기 조건이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점진적 개혁의 성공 요인이 된 특수성을 설명한 반면, 林毅夫 등(1994)은 경제의 초기 조건과는 관계없이 양국 경제개혁 전략과 추진방식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중국 국민들의 의지와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시각에서 개혁 성공의 원인을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sup>38)</sup>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경제는 역내 국가들 간 경제적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주요 담론이 되어 왔다. 90년대 진입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장기 침체,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 그리고 2001년~2002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역내 외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왔고, 막대한 시장잠재력 또한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중국의 성장 신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전망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핵심적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1999년 9월과 11월, 그리고 2000년 5월 일본, 미국, EU와 차례로 WTO가입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 지은 후 지역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그 첫 시도가 아세안과의 무역협정 이었다. 양측은 2000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가능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에 합의한 후 2002년 11월 '포괄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이 아세안과 전격적으로 시장통합을 시도하게 된 것은 중국의 성장전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경제개발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순기능적인 주변 환경 관리를 외교정책 기본원칙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안정은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다. 더욱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

38) 한홍석 . 2004년11월20일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원인이 뭐가요?" .  
<http://k.daum.net/qna/view>.

압력과 미국, 일본 간 관계 밀착 속에서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패권적 팽창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은 대아세안 지역협력에 적극적 이니셔티브가 필요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설립 제안은 아세안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의 주요 행위자로서 아세안의 존재를 지지하는 한편 중국이 아세안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지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표출된 것이었다. 중국으로서 첫 지역협정인 아세안과의 FTA는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한국, 일본과의 FTA를 위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sup>39)</sup>

한편, 아세안측은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도 아세안 자체 성장전망과 관련하여 90년대 이후, 특히 동아시아 위기 이후 중국으로의 투자유출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90년대 초 개도국 투자의 61%, 아세안 17%로 역전되었다<sup>40)</sup>. 비록 아세안이 1992년부터 내부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 계획을 추진하여 왔지만 이것은 중국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또 회원국들 간에 자유화에 대한 이해도 엇가려 있어 그다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경제 및 투자환경은 중국이 보다 성공적으로 대아세안 지역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중국은 아세안과 2004년 11월 '포괄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상품교역협정을 체결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으로서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투자의 쇠퇴와 특히 WTO 가입에 따른 역외 국가들의 교역관계 활성화로 아세안측이 갖게 된 우려를 중국시장 진입 권을 보장함으로써 완화시키고, 아세안측으로서는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잠재적 지역패권세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입지를 인정해주는 한편 이를 통한 역내 협력의 주축으로서 역할 확보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구축은 아세안 국가들이 냉전 시기 중국을 지역정세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볼 때 커다란 변화 이다. 즉, 아세안은 1967년 출범 시 역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표로 하였던 반공주의적 성격이 강한 지역조직 이었다. 냉전 시기 중국 공산정권은 동남아에서 공산

---

39) Kevin G. Cai, 2004, "Chinese Changing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an East Asian Free Trade Area,"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 no.4, p.590.

40) Joseph Yu-Shek-Cheng, 2004,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genesis and implication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8, no.2, p.268.

주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보 불안의 근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다양한 형식으로 역내에서 자국에 대한 위협인식 해소를 꾀하였으며, 다자 활동 참여를 모색해 나가기 시작 하였다. 중국은 1991년 APEC에, 1994년 ARF 에 가입한 데 이어 1996년에는 아세안 주도로 성사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 아시아 측 파트너로 참여 하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관계를 축으로 아세안과 상호이익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갈등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간 행동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희망과 기대감을 높였다.<sup>41)</sup>

중국은 이어 2003년 10월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는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였다.

동북아 3국간 FTA 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도 중국이다. 중국은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 3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민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으며, 2005년 5월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3국간 FTA 가능성 검토를 위한 공식 연구그룹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우이 중국 부총리도 일본과 FTA 협상을 제의 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 국간 민간공동 연구 실시에 합의한 후 2005년부터 양자 FTA 가능성 연구를 개시하였다.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후 선진 생산기술을 습득하고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경쟁력을 확인한 중국은 그로부터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격적으로 변화 시켰다. 과거 중국은 다자보다는 양자관계 중심의 접근을 선호하였고 다자무대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자국 산업이 자생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경제의 성취는 그러한 우려를 자신감으로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지역주의 전략 속에서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역량과 잠재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세력 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sup>42)</sup>

---

41) Brantly Womack, 2003/2004, "China and Southeast Asia: Asymmetry Leadership and Normalcy," Pacific Affairs, vol.74, no.4, p.533.

42) 설규상,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한계 : 중 / 일의 지역주의 접근과 리더십 역량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3호 .

### 제3절 중국 위안화의 부상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주로 현대 산업의 수출 지향적 확장으로 연평균 거의 10%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환율로 환산 할 때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제4대 무역대국으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무역의 비중은 20년 전의 1% 미만에서 2002년 6%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수출 구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주종수출품이었던 의류, 신발, 기타 경공업제품 및 연료에서 1990년대 후반의 사무용기계, 장거리 통신장비, 가구고아 공업용품과 최근에는 자동화자료처리장비와 소비자전자제품으로 변해 왔다. 중국 수출품의 빠른 성장에 따라 중국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원유와 동과 같은 제1차생산품, 전자제품과 기타 소비자내구재의 부품과 같은 중간 투입 자재 및 높은 투자율로 인한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만성적인 무역흑자가 최근에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은 중국과 경제발전, 기술적 능력 및 비교우위의 상이한 단계로 중국의 수출품과 한국의 수출품이 보완관계라 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보완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이 인접국들의 수출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국가별, 지역별 및 세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분명히 중국의 수출은 한국의 발전경로에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노동집약적 공산품의 세계 시장가격을 인하시킨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더 기술집약적이고 숙련노동집약적인 수출품으로 기술적 사다리를 이동하도록 동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인적자본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여 중국의 제조업에서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원료, 중간재 및 자본재의 생산 분야에 더 전문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중국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이나 금융 및 재정정책을 더 긴밀하게 조정하는 노력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수출증가로 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는 현 단계에서 소비재에 한정되고 중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가는 자본재의 경우에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고 중국의 수입된 기계와 장비에 대한 왕성한 수요에 혜택을 보는 고소득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경로는 해외직접투자(FDI)인데 이 문제도 무역의 분석과 유사하다.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의 자석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국에 투자됨으로써 얻는 더 높은 한계수익률을 얻는 혜택이 있으므로 전체효과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낮은 인건비에 입각하여 중국과 경쟁을 추구하는 아시아의 저개발국들은 해외 직접투자 전환의 위협에 특히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한 대응책은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보다 최소한 반보라도 먼저 앞서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합한 접근방법이 산업집적지로서의 경제특구를 형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sup>43)</sup>

중국이 50~100년을 내다보고 시작한 ‘서부 대 개발’ 도 동북아나 한·중·일 FTA에 관심을 덜 갖게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내적으로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역 간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경제성장기반을 넓히고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부강과 함께 서부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다지려는 것이다. <sup>44)</sup>여기에는 광범위한 산업의 구조조정도 포함된다.

이 전략은 중국이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홍콩과 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을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상응하여 서부 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국가발전구상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서부지역에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와 더불어 광활한 아시아대륙의 생태계 보전차원에서의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중국의 국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중국은 서부 대 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동북아보다 지리적으로 접근이 유리한 동서남아, 서방세계와의 연계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과 국제정치적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세력을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 대외정책의 반패권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구적 패권국 위치 확보를 위해 중국이 강대국

43) 강정모 외. 2005.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박영사. pp.277-278.

44) 曾培炎. 2001. 『2001年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報告』. 北京中國記劍出版社.

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제기 하고 있다고 본다. 1990년대에 중국의 발전이 서방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 위협 론」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경제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sup>45)</sup> 중국은 이러한 음모를 모두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黃禍論(Yellow Peril)」과 같은 맥락에서 경계한다.

이와 같이 동북아는 중국과 미국·일본의 대결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통합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經濟一體化'대신 단기적으로 中華經濟圈 의 자유무역 지대 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ASEAN 과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동북아보다 동남아 우선정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 준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동북아보다 동남아를 더 중시하는 정책은 근대부터 실시되었다. 중국 明朝 의 통치자들은 동북아국가들과의 교역을 朝貢制度 의 틀 속에 묶고자 하였다. 16세기 명조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교역을 법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양국 교역은 대부분 密貿易 이었고 일부는 동남아 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와의 경제적 관계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1567년에 福建省 廈門 항구가 동남아 교역에 종사하는 중국의 개인 상인에게 개방되었다. 이때로부터 중국 상인들은 동남아 전역의 항구지방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게 동남아의 경제적 중요성은 급격히 커지게 되었다.

17세기 초에 일본 도쿠가와(得川家康)의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정치적 안정과 일본 제련기술의 발달로 중·일 무역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중·일 무역도 중국과 동남아무역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당시에 동남아는 이미 중국과 서양의 교역중개지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동남아는 화교를 매개로 하여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동남아 관계를 토대로 한 중화경제권과 ASEAN 의 FTA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를 추진 중 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과 일본의 구상·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치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통합보다는 ASEAN+3이나 ASEAN+5의 자유무역지대단계를 거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

---

45) 「중국 경제 붕괴론」은 미국 MIT의 Lester Thurow 와 Pittsburgh 대학의 Thomas Rawski 등이 중국 정부 발표 통계를 허구로 보고 1998년 이래 중국의 사실상의 성정은 멈추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Financial Times, July 4,2000).



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서 중국경제의 변수는 특히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중국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日本經濟研究센터(2000)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2020년까지 연평균 7%를 유지할 경우에 중국-대만-홍콩의 경제규모는 약 15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일본을 능가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sup>46)</sup>

또한 일련의 매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위안화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제2의 달러로 통용될 만큼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중국의 경제학자가 밝혔다.

同濟대학 경제학과 石建勛 교수는 2008년 4월3일 인민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최근 동남아로 여행을 떠날 때 습관처럼 현금을 달러화로 환전해서 갔었는데 그곳에서 면세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상점, 음식점에서 모두 위안화가 통용되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위안화는 일본의 엔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원화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되지 않는 통화였지만 현재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제2의 달러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石建勛 교수는 특히 미국 경제의 침체와 달러의 약세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롭고 다원화된 국제통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중국의 위안화가 향후 국제통화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石建勛 교수는 "중국이 2010년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게 되면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더욱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벨기에 루뱅대 폴드 그라위 교수도 지난 2월 미국 달러화의 약세 속에 중국의 위안화가 유럽의 유로화와 함께 세계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sup>47)</sup>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sup>48)</sup> 미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앞으로 25년 이

---

46) 오용석·안충영. 200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pp. 361~362.

47) 2008.04.03. "중위안화, 동남아선 제2의 달러". 중국경제뉴스 . <http://blog.daum> .

내에 중국 위안화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노벨상 수상자 베이징 포럼'에 참석한 먼델 교수는 수도경비대학에서 '국제통화시스템의 진보 및 중국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의 학술강연을 통해 위안화의 세계 3대 통화 부상 가능성을 예견했다.

지난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먼델 교수는 강연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찬양하고 "경제성장률이 매년 8-9%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먼델 교수는 이어 "위안화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져 이미 영국 파운드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의 하나가 됐다"고 지적하고 "2030년께에는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대신해 세계 제3위의 중요 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델 교수는 위안화의 환율 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외환관리제도 때문에 위안화의 자유태환이 불가능해 위안화의 환율 변동에 일정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평가절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위안화 환율이 1대8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증가한다고 말하면서, 이미 일본을 앞지른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되는데 대해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환관리 제도를 완화해 더욱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sup>49)</sup>.

상술한 여러 가지 논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은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의 경제 지위는 점차 적으로 제고 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여러 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은 국가로 인증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통화통합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기축 통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시사점이다. 동북아에서 기축통화의 주도권을 경쟁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서 자국 통화를 동북아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통화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발달한 국가이고 중국

48) 캐나다 출신인 먼델 교수는 개방 경제에서 화폐 및 재정정책을 지배하는 이론, 다양한 환율체제 하에서의 통화재정정책 연구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유럽연합(EU) 단일통화 분석'이란 논문으로 유로화 탄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석학이다.

49) 2006.09.08일자. "중위안화, 2030년엔 엔화 제치고 3대 통화 부상". 『유로화의 아버지 먼델 교수 위안화 제3통화 부상』. Seoul Finance 저널.(베이징=연합뉴스).

<http://blog.naver.com/esuccess>.

은 지금 고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발전 도상의 국가로서 아직도 여러 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일본 엔화가 국제 통화로 되려면 여러 나라에서의 거부감을 피면 할 수 없다. 일본 엔 국제화 정책은 지나치게 일본 중심적이고, 일본의 실질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엔이 실질적인 통화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엔 국제화 정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태도이다. 일본의 엔 국제화가 위기관리에 현실적인 방안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체에 대한 구상이 없는 상황에서 엔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재편은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적극화 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2차 대전경험으로 인해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반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대는 엔 국제화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은 엔 국제화 정책이 일본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도 엔이 아시아 역내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지위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sup>50)</sup> 이러한 형세 하에서 중국의 위안화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축통화로 자리잡는 위치가 더욱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

50) 진창수.2002.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세종연구소. pp.58~59.

## 제6장 결론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유럽통화에서 보여주듯이 경제적 여건이 만족되어도 강한 정치적 결속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에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목표로 상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단일 통화권의 형성을 목표로 한 환율안정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요원한 과제이다.

또한 통화통합은 한 국가의 화폐가 통합을 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통합을 맺은 성원국 간에서의 경제의 발달 정도 정치 세계적인 지위 등 방면에서 모두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의 증거이다. 하여 통화통합을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민감한 국제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축통화로 된 나라가 자국의 지위를 높여 세계경제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날로 발전하는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이런 경제위기를 다소나마 억제하려고 서로의 힘을 모으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통화통합의 논의의 발생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축 성장에 따른 금융 및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촉발된 일본 엔과 동아시아 국가 통화들의 불일치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시대적인 당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대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통화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화의 출범으로부터 미 달러화의 약화가 발생하면서 유로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시아 지역 즉 동북아시아에서 제기된 통화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쳤으며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둘째, 제4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3개의 경제 기둥인 한·중·일 3국의 무역투자 관계와 서로간의 교역을 도표로 설명하면서 경쟁력이 가장 큰 중국과 일본의 화폐경쟁

력을 비교하여 기축통화로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 하였다.

셋째, 한·중·일 3국이 서로 협력하여 통화통합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구상으로부터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동북아시아의 각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위안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현황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세밀한 전략적인 비교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중·일 3국가의 실천가능성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보수(payoff)를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화통합에 관한 기존의 국내논문들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료의 부족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차후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상모. 2007. 「동북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 강정모 외. 2005. 『장보고와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박영사.
- 고민창. 2006.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예상효과 분석: 유럽경제 통화동맹(EMU)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경상학회.
- 김영민. 2003. "東아시아 最適通貨地域의 探索-衝擊反應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제74회,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 2007년 10월 29일자. "굿바이! 달러패권시대". 「Economy21」.
- 김인철. 2001. 「동아시아 금융통합 과정과 향후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6권 제2호.
- 김태준 · 유재원 타카키신지. 20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금융연구』. 16권2호.
- 권선화 유재원 . 2005. 「통화통합의 무역증진효과 분석」. 『무역학 잡지』. 제30권 5호 .
- 라승권. 2005. "EU經濟統合의 效果와 동아시아 經濟協力에의 시사점-유로의 出帆과 중국의 浮上을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제104회 석사학위 논문.
- 박해식. 2007. 「미 달러화 위상의 약화요인과 대응방안」. 『금주의 논단』, 제16권 45호.
- 박성훈 김홍중.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적 특징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고려대. KIEP.
- 설규상.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과 한계: 중·일의 지역주의 접근과 리더십 역량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3호 .
- 송희영. 2000. 『외환관리론』. 삼영사.
- 안충영. 2002. 「세계적 지역주의의 추세와 동아시아 내 최근변화」.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 오용석 안충영. 2003. 「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 안충영 이창재. 2003. 『동북아 경제 협력: 통합의 첫 걸음』. 박영사.
- 이돈관. 2006-09-08. "유로화의 아버지 먼델 교수 위안화 제3통화 부상 ". Seoul Finance 저널 <http://blog.naver.com>.

- 오규열. 2005-06-04. "위안화 평가 절상 논의의 촉발". 비즈니스경제
- 유광현. 2002."東아시아의 最適通貨바스켓 摸索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재원·김태준. 1999. 「아시아 통화위기와 지역통화제도의 모색」. 『국제통상 연구』. 제4권 2호.
- 진병태. " 中위안화 세계 기축통화 가능".(상하이=연합뉴스).[jbt@yna.co.kr](mailto:jbt@yna.co.kr) .
- 진기명. 2004.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과 세노리지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회도서관.
- 진창수. 2002.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 경제』. 세종연구소.
- 한홍석. 2004.11.20.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원인이 뭔가요?" .  
<http://k.daum.net/qna/view>.
- 杜凤英. 2005.12.06. "货币合作：打破东北亚经济合作僵局的有效途径".中国经济时报.  
<http://finance.sina.com.cn>.
- 乐后圣 . 2006.06.23. " 和平时期的亚洲货币主权意识, " . <http://www.info.feno.cn> .
- 乐后圣 .2006.06.23. "世界和平发展建构和谐亚洲的战略选择".( 北京100083 )
- 李鸿培 · 岡本信廣. 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산업연관 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陆建人. 2005.08.01. "对东北亚经济共同体的几点认识".世界经济学会常务理事年会论文.
- 郭 华. 2006.11.18. 「东亚货币合作中中日货币竞争力比较」. 『金融教学与研究』.
- 鱼 鳞. 2007.5.31"东北亚货币一体化？中日韩金融新设想". 中国证券报.  
<http://www.financeun.com>.
- 曾培炎. 2001. 『2001年中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报告』.北京中国记剑出版社.
- 张蕴岭. "为什么要推动东亚区域合作?". 《国际经济评论》.( 2003年9-10期 )
- 张卓元. 2006.09.14. "续高速发展的原因".中国宏观经济信息网.
- admin. 2007.2.20. "欧洲货币看亚洲货币一体化". 中年人生国际贸易论文.
- admin. 2007.04.29. "中 `日 `韩之间贸易和投资的关系". <http://info.feno.cn>.
- admin. 2007.4.29. "中, 日, 韩之间贸易和投资的关系". <http://www.info.feno.cn> .
- \_\_\_\_\_ 2000.3.17."동북아개발은행의 구상-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http://www.dwnam.pe.kr/jiam3\\_2.html](http://www.dwnam.pe.kr/jiam3_2.html)
- \_\_\_\_\_ 2005.02.01. " 달러에 대한 위안화 절상이 원/달러 환율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http://blog.naver.com>.
- \_\_\_\_\_ 2006.09.08. "中위안화, 2030년께 엔화 제치고 3대 통화 부상". 『유로화의 아버지 먼델 교수 위안화 제3통화 부상』 Seoul Finance 저널.(베이징=연합뉴스).

<http://blog.naver.com/esuccess>.

\_\_\_\_\_ 2008-02-27 ."자본시장 발전의 외부금융환경 :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경제!" .아주일보. <http://blog.naver.com/ballocha>.

\_\_\_\_\_ 2008.04.03. "중위안화, 동남아선 제2의 달러". 중국경제뉴스 . <http://blog.daum> .

[Internet Web Site]

국가통계 포털 KOSIS. (<http://www.kosis.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대한민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상해 이에셋 (<http://shanghaiasset.com>)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식정보 (<http://www.ikis.re.kr>)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참사처 (<http://kr2.mofcom.gov.c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中国统计局 ( <http://www.stats.gov.cn> )

中国经济教育科研所 (<http://www.cenet.org.cn>)

中国商务部 ( <http://www.mofcom.gov.cn> )

中国网 ( <http://www.china.com.cn> )

人民日报 ( <http://www.people.com.cn> )

WTO ( <http://www.wto.org> )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67738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금 희	한문: 李 今 姬	영문: LI JIN JI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연락처	E-mail : nvtewu0612@hotmail.com				
논문 제목	한글: 동북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urrency Integration of the Northeast Asi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08 년 8 월 일

저작자: 이 금 희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